FEMININITY AS A TOOL FOR HEALING CLERGY BURNOUT: DREAM ANALYSIS OF A MIDDLE-AGED CLERGYMAN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yunMok Yoo

May 2016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Insert HyunMok Yoo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Young Gueon You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6

ABSTRACT

FEMININITY AS A TOOL FOR HEALING CLERGY BURNOUT: DREAM ANALYSIS OF A MIDDLE-AGED CLERGYMAN

by

HyunMok Yoo

This research project is a study on femininity shown in a middle-aged male clergy as revealed through the dream analysis of a research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50 original educational analysis materials have been coded and investigated by a Jungian psychoanalyst for a period of six years. From this, I have discovered that each of the female archetypes identified in the clergyman's dreams has a unique and special role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of middle-aged clergyman experiencing burnout. Also,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femininity had reacted according to immediacy, simplicity, fitness, and suitability toward self actualization. From the findings, I discuss and conclud that it is more adequate to explain the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 a three-dimensional *matrix* of a dialectical process than to interpret it as circumambulation through a two-dimensional "coniunctiooppositorum"or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I hope this study offer suggestions for Korean Protestant churches to understand femininity as a tool for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from an analytical psychological point of view.

KEYWORDS: Dream Work, Anima, Femininity,Matrix, Individuation

SUMMARY

This research project examines the main narrative and characteristics of femininity, particularly as they have appeared in a middle-aged male clergyman's dream analysis, and it researches how they serve the development of self-transcendence and integrity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auther's motivation behind the research subjec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er also introduces and examines two case studi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nd one phenomenological study related to dream analysis as preceeding studies. It also defines key terminologies and the scope of the research study.

The second chapter considers that theoretical perspective related to the study. It explores various understandings of dreams, analytical psychology, and feminist's perspective on masculinity and femininity. Since the endeavour to understand dreams is as old as history of huminity, interpretations of dreams are also diverse. This study's position has been coalesced through an examination of dreams' functions and structures and understandings of dream in the Bible and in history of Christianity.

In addition,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concept of the shadow briefly in analytical psychology, which provides an interpretive framework for researchers to understand dreams, the anima, and the archetypes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Moreover, it discusses the contribution of analytical psychology in the recovery of feminine values and its ambivalence, while critically discussing the limitationsof Freud and Jung's depth psycholog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third chapter provides an overviewof the research methodology. It first examines John Sanford's five ways of understanding dreams and explains the use of Jungian dream interpretation as a tool for analyzing a middle-aged clergyman's dreams. Second, reasons are given for wh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selected, and the overall research process including selection of data and spiral analysis used to achieve the scope of the study are outlined.

The fourth chapt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The dreamer's positionality is first discussed, followed by the extreaction of 27 meaning units related to feminine and the archetypes of individuation, as they have appeared in the six years' worth of dream analysis. These are categorized into eight classes and then into four subjects.

Also, this suspends judgement regarding the study's analysis and the derivation of meanings about the female archetypes, and it unbiasedly discusses the experiment itself. While exploring the complex dynamics of dreams, it is discussed that women in dreams function as the principle of salvation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towards the wholeness and self-actualization of dreamers.

The fifth chapter highlights six key findings of his research study. First, the study suggests that female archetypes appear in various forms, and each one of them plays a unique role. Second, regardless of their positive or negative associations, a countless number of female archetypes operate as complex dynamics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and actualization for the healings and reconciliation of clergyman who experience midlife burnout. Third,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femininity do not develop through a two-dimensional model called "coniunctiooppositorium"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ime.

Fourth, it is easier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femininity in dreams as three-dimensional using the modern term *matrix*, than as two-dimensional using the abstract concepts of "coniunctiooppositorium" or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The individuation process follows the matrix principle and proceeds according to immediacy, simplicity and fitness and suitability. Fifth, judging from a facilitation point of view, the feminine principle functions to expand its range to others without losing its identity. And sixth, one should focus on the fundamental values of femininity's self-transcendence and integrity, which Jungian discovered, instead of the prejudices of the inherent elements of sexism.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auther conclude that accomplishing gender equality requires an androgynous human understanding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researcher's imagination, the individuation process was depicted in a diagram. The final chapter also discuss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formed from this stud, researcher also proposed to include a group dream work seminar for middle-aged clergymen as the spirituality and pastoral counseling programme with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연구의 주제

본 연구는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중년기 남성 목회자의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 원형에 관한 연구이다. 분석심리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 이론이다. 융의 학설은 단순히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논리적 사고의 결과도 아니고 종교적 신앙고백도 아니며 실험적 통계의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현상 그 자체로 관찰하고 무의식의 움직임을 진지하게 고찰한 경험을 토대로 한 가설이다. 그런 점에서 융의 분석심리학은 철저히 현상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그것은 그저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의 자료를 분류하고 쌓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체험을 사실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석심리학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적 판단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연구한다.

이번 연구의 대상인 중년기 남성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의 영혼의 의사로서 분석심리학이 그들에게 과연 실천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면 고통받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돌봐야 하는 책임자의 내면 세계가 먼저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단지 신학적 이론의 체계와 학식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표상으로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동시에 실상 그것을 연구하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대상을 이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회자 자신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진지한 숙고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꿈 분석은 무의식의 내용을 자아에 동화시켜 나가기 위한 분석심리학의 한 방법이다. 이로써 정신적인 것의 실재를 밝혀내고 대상으로 하여금 본래적 전인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꿈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가 되었다. 존 샌포드는 하나님을 꿈의 작가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인간이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철저하게 명령하신다고 했다.[1]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갖가지 상징으로 가득 찬 다양하고 복잡한 꿈의 해석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

[1] John A. Sanford, *Dreams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trans. 정태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2.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꿈은 우리에게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환상으로 취급되었으며 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보편화되었다. 교인들 역시 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왔고 목회자 역시 강단에서 개인적인 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또한 오랫동안 금기 시 되어 왔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분별하고 목회적으로 도와야 하는 목회자들은 외적인 사역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고착되어 있고 가부장적인 가치체계에 학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꿈에 등장하는 원형상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서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꿈들이 신앙의 위인들의 삶 속에 등장했으며 그것은 자주 하나님의 언어로 소중하게 다루어져 왔다.

남성의 꿈에 등장하는 여성 원형은 성숙과 성장의 주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종교학이나 신화학에서 온전한 인간상은 자주 양성적인 존재로 표현되곤 한다.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온전성은 항상 부성과 모성을 통합한 양성적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남성은 여성성을 통합하고 여성은 남성성을 통합함으로써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성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돕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연구는 중년기의 남성 목회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속에서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 원형을 만나고 통합함으로써 개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B. 연구의 동기와 목적

이번 연구는 철저히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였다. 중년기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통합하여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정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의 갈등은 이전의 익숙한 것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아직 새로운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과도기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자신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취와 경쟁을 추구하며 살았던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40 대에 접어들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한 감정에 쉽게 휩싸이곤 했다. 아직 육체적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마치 타버린 재처럼 목회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동안 추구해온 외적인 성취가 연구자의 삶에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에 직면하였다. 그러면서 자주 좌절과 혼란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혹시 연구자의 목회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곤 하였다. 결국 어느 순간 항구를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암담한 자신의 실존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자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 6 년 동안 국제 공인 융 정신분석가인 심상영 박사로부터 150 여회에 걸쳐서 분석심리학 수업과 함께 꿈 분석을 받았다.[2] 이 시간은 한적하고 고요하고 단순한 사색의 동굴에서 연구자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와 대면함으로써 목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 시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진정한 자신과 타자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순례의 여정이기도 했다. 특히 꿈에 등장하는 그림자는 연구자 자신의 왜곡되고 병든 자아상을 돌아보게 했고 내면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인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다른 이들과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원형상들은 내면 세계로의

---

[2] 심상영은 2005 년 1 월 스위스 심층심리연구소에서 융 분석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Th.B., Th.M.), 게렛 신학교(M.Div.), 샌프란시스코 신학교(D.Min.)를 졸업했으며 시카고 융 연구소에서 분석심리학을 수학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분석과 슈퍼비전을 하고 있고 감신대 및 명지대에서 강의하기도 하며 지은 책으로는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융의 분석심리학”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융 심리학과 고양이” 외 다수가 있다.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앞으로나아가야 할 방향과 영적 에너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꿈 분석이 인생의 오후를 보내는 중년기 남성 목회자들이 좌절과 혼란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시기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지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매우 유용한 영성 수련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이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목회 현장에서 여전히 성취와 경쟁 중심적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가부장적인 한국 목회자들에게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위한 영성 수련의 한 방편으로서꿈 분석을 소개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남성 목회자의 꿈에 나타난 여성성의 주된 내용과 특징을 꿈해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들이 목회자의 내면에서 자기 통합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원리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C. 선행연구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의 꿈 분석에 대한 연구 논문과 분석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아니마 이론에 대한 학위논문과 여성 융 분석가와 현대 여성주의자들의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남성들이 융학파의 꿈

분석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여성성의 변화에 대한 학위논문이나 소논문을 찾아보았지만 한국의 신학 분야뿐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아직 그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행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이 꿈 분석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몇 편의 사례 연구와 최근의 여성의 여성성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논문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다감은 그룹 투사 꿈 작업 체험 여성들의 여성성 인식 변화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여성들이 꿈 작업 전 원 가족 및 가부장적 사회가 강요하는 직접적 암묵적 성차별과 인습적 성 역할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여성이 스스로 여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성을 강화하거나 인습적 여성성에 순응하거나 적극적으로 갈등하며 저항한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한 여성성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왜곡된 여성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갈등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갈등을 자기 성장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3]

이 때 꿈이 표출하는 그림자인 여성성은 어린 소녀와 가부장제에 희생된 여성성으로 등장했고 꿈이 표출하는 아니무스인 남성성은 무기력 또는 잔인하고

---

[3] 이다감, "그룹 투사 꿈 작업 체험 여성들의 여성성 인식 변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M.A. thesis, 불교대학원대학교, 2012), 172.

폭력적인 남성성으로 나타났는데 꿈 작업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 내면에 여성성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꿈 작업을 통하여 상처입고 억압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인식하고 자아 정체성이 치유되고 확장되면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4] 그녀는 꿈 작업의 원리를 원형적 여성성과의 접촉, 여성성과 남성성의 회복과 긍정적 변화, 개인, 집단, 사회적 무의식과의 접촉, 페르조나, 그림자 투사 인식 등의 단계로 정리하면서 이로써 기존의 가부장적인 여성성이 해체되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꿈도 변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5]

그러나 이다감의 연구는 여성들이 꿈에서 경험하였던 자신의 그림자 즉 여성성을 태고의 모성성과 연계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남성성 즉 아니무스 경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 통합에 이르도록 역할을 하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연구 결과로서 꿈이 표출하는 폭력적인 남성성 등 다양한 원형상이 등장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성성이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체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남성성에 대한 주체적인 변화가

---

[4] 이다감, 172.

[5] 이다감, 172.

일어났으며,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생의 조력자로서 남성성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여성이 그림자 작업을 통한 여성성 인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니무스인 남성적 원리가 어떻게 여성에게 구원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 분석가인 이보섭으로부터 교육 분석을 받은 후 꿈 분석을 통한 중년기 개성화 과정에 대해 연구한 박은숙은 약 10 개월 동안 30 여편의 꿈 분석을 받은 자료들 중에서 개성화와 관련된 7 편의 자료를 논문 말미에 사례로써 제시하였다. 그녀의 논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에 기초한 신의 존재만 인정할 뿐 기존의 기성화된 기독교적 도그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꿈 해석가인 루이스 세이버리의 꿈 해석 이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다.[6] 그러나 그녀의 논문은 사례 연구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써의 사례 연구의 순서와 원칙에 따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배경과 해석적인 연구만을 보여줄 뿐 여성으로서 개성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림자로서의 여성성과 아니무스로서의 남성성의 원리가

---

[6] 박은숙, “꿈 분석을 통한 중년기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 (M.A. thesis, 상명여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2007), 83.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꿈에서 자기 통합과 성숙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미진술과 통합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심상영으로부터 꿈 분석과 심리치료라는 제목의 그룹 꿈 분석을 받으면서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한 이현숙은 7 편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과 같아서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의 내적 경험에 진실하고 충만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다.[7] 그러나 이 논문 역시 자신의 꿈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꿈의 내용, 의식상황, 자유연상 그리고 분석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인 가치구조 속에 살아온 여성으로서 그림자로서의 여성성과 아니무스로서의 남성성이 어떻게 꿈에 나타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결국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자기 통합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미와 원리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분석심리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심도 있게 경험을 현상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며 특히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

[7] 이현숙, “꿈 분석을 통한 개성화 과정 연구” (M.A.C. thesis,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8), 84.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신학 논문 중에는 최근 들어 분석심리학과 영성, 또는 기독교 교육학과 간학문적인 연구가 더러 있긴 하지만 분석심리학과 실천신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 자체를 현상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는 기존의 논문과는 다른 차별성과 독특성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와 같이 이론적 배경과 해석적 연구와 함께 단지 자신의 분석받은 몇 편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먼저 사례연구나 현상학적 연구 또는 근거이론 등에서 부분적으로 원리와 방법론을 채택하여 일반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따라 자신의 꿈 분석 자료를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그러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아니마 원형 즉 남성 안에 숨어 있는 잃어버린 여성성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개성화 과정에서 그들의 원리를 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주제는 아직까지 한국 신학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기독교 안에 절실한 목회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층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D. 용어들의 정의

1. 여성성

일반적으로 여성성에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여성성이란 융의 분석심리학의 아니마를 일컬으면서 동시에 태고의 모성성인 모성 원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강제했던 전통적인 억압적 인습적 여성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남성 안에 태고적부터 존재해 온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내면적 인격과 영혼 즉 무의식적 여성성의 원형상을 뜻하는 것이다.

2. 꿈 분석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융(Carl Gustave Jung)에 의해서 고안된 정신분석의 한 방편으로써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와 정기적으로 마주앉아 미리 적어온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분석가가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무의식의 소리를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숙고(Carefull Consideration)하고 자기를 반성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맹점을 깨달아 더이상 남에게 투사하지 않는 성숙한 개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분석과정을 뜻한다.

융 학파의 정신분석에는 개인교육분석 외에도 그룹 꿈 분석, 회화분석, 적극적 명상, 모래 치료 등 특수 기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분석은 오로지 꿈 분석 한 가지로 제한하고자 한다.

3. 페르조나, 그림자, 자기, 개성화

페르조나(Persona)는 원래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하며 분석심리학에서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발해야 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외적 인격을 뜻한다. 그림자(Shadow)는 페르조나로 계발되지 못하고 표층적 무의식에 드리워져 있는 원형적 측면으로서 크게 개인적 그림자와 집단적 원형적 그림자로 구분된다. 개인의 그림자는 심리에 존재하는 어두운 영역으로서 유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치스러운 나의 또 다른 열등한 측면이다. 이것은 주로 동성에게 투사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 그림자는내 감추어진 남성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자기(Self)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튼 하나인 그의 전부를 말한다. 인간에게는 전체가 되고자 하는 원형적 기능이 조건 지워져 있는데 그 사람 전체가 되고자 하는 경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과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체가 되게끔 하는 능력이 자기이다. 개성화(Individuation)란 자기의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기 실현을 해 나가면서 변증법적이며 순환적으로 발전하는 자기실현(Self Actualization)의 과정이다.

E. 연구의 범위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융 학파의 이론을 다 다루지 않고 그 중에서도 꿈 작업과 관련하여 성서에 나타난 꿈과 환상, 꿈의 성격과 구조, 꿈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그리고 꿈의 해석과 관련된 이론과 적용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했다. 그 중에서도 남성이 개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여성성으로서의 아니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안에 잠들어 있는 여성 원형이 어떻게 꿈에 나타났으며 그것들이 남성에게 자기통합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구원의 원리로서의 여성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Chapter II

이론적 고찰(Theoretical Study)

A. 꿈의 이해

1. 프로이트의 꿈 이해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꿈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관점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랐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어떤 시대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어떤 종족에게는 마귀의 유혹이었으며 또 어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저히 개인의 경험의 문제이다. 만약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만약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저 “개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몰이해를 반영할 뿐이다.

꿈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뜻일까? 이부영은 고대 그리스에서 성행했던 아스클리피우스 사원에서의 수면은 꿈의 치료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들고 있다. 그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톨로스라는 신성한 건물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꿈 속에 계시된 처방을 따르면 치유된다고 믿었다. 시베리아의 샤먼들에게 있어서 꿈은

환자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는 구실을 하였고 인디언 부족들 역시 병 치료를 위해서 꿈 해석을 하였다. 고대 메소파타미아와 극동에서도 길흉화복을 점치는 수단으로 꿈을 해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에 대한 해석은 늘 인간의 관심사였고 그것은 매우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 어떤 힘의 영역이라고 믿었다.[8]

그러나 꿈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프로이트였다. 그는 신경증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자유연상기법을 통하여 사람의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연구 결과 꿈이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왕도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의 관점에서 이드(Id)는 무의식 생활을 지배하며 꿈이란 무의식 속의 욕구와 활력을 환상의 형태로 드러내 보이는 것 또는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꿈이란 무질서한 본능에서 여과 없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꾼 이의 정신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를 포장한 상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즉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볼 경우 받게 될 엄청난 충격을 감안하여 스스로 그것을 압축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무의식 안에서 상징화하는 작업을 하게

---

[8] 이부영, *분석심리학*(서울: 일조각, 1993), 177.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항상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가를 통하여 그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항상 꿈이란 전적으로 경험이 무의식 안에 억압된 결과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의 상징은 오직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2.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꿈의 기능

프로이트와 결별한 융은 그로부터 학문적인 영감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석 방법을 환원론적 해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융은 프로이트가 갖가지 상징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해석 가능성을 무시한 채 어떤 상징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환원시켜 주장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융은 프로이트의 자유연상기법을 거부하고 직접 연상을 통해 꿈 자체에 온 신경을 집중하였다. 또한 상징의 확충(Amplication)을 통해 한층 폭넓은 신화적, 상징적 문맥 속에서 상징의 심층적 의미를 추출하였다. 프로이트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라는 원인론적인 관점(Why)에서 꿈을 해석했다면 융은 이 꿈이 무엇을 가리키는가(Where to)라는 측면 즉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였다.

---

[9]David Fontana, *The Secret Language of Dreams 꿈의 비밀*, trans. 원재길 (서울: 문학동네, 1998), 10-13.

프로이트가 볼 때 무의식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식은 창조의 샘과 같았다. 그 안에서 무의식은 끊임없이 자아에게 온전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창조적인 방안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부영은 이것을 상처에 대한 무의식의 의도와 처방을 찾는 자세라고 하였다.[10] 융이 볼 때 꿈이란 의식이 무시했거나 소홀히 여겨 정신적인 영역에서 불균형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개선 가능한 치료를 제공하여 그에게 현 상황을 교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꿈의 보상기능(Compensatory Fun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몽상가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경우 하늘을 나는 꿈을 꾸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꿈을 꾸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꿈의 보상 작용이다. 융은 하늘을 날거나 추락하는 꿈은 그들의 인격적 결함을 보상해 주는 동시에

---

[10]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129-30.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계획이나 걷고 있는 도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며 꿈의 경고가 무시되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했다.[11]

그러나 모든 꿈을 이렇게 의식의 반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상징이란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단지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보상의 대상과 보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꿈 자체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꿈을 꾼 사람의 의식 상황에 현재 특별한 보상이 필요할 만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즉 내면의 무의식 안에서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무의식 안에서 저절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심혼의 자가조정체계라고 불렀다. 정신 영역에서 어떤 과도한 자극이 발생하면 즉각 또는 불수의적으로 보상이 일어난다.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대사도 정상적인 정신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상학설은 정신적 형태의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실제로 꿈을

[11] Carl G. Jung et al., *Man and His Symbols 인간과 상징*, trans. 이윤기 (서울: 열린책들, 2011), 66.

해석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다음 물음을 던지게 되다. 즉 어떤 의식적 태도가 꿈에 의해서 보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12]

또한 꿈의 예시적 기능(Prospective Function)은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꿈의 기능이다. 이부영은 예언적 기능과 예시적 기능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즉 꿈의 예시적 기능은 종교적 예언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꿈이 미래를 조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의 제약을 넘어서서 훨씬 넓고 먼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시적인 꿈이 과연 그러한가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13] 즉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시적인 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기능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비록 예시적인 꿈이라 할지라도 예언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김성민은 예시적 기능을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조합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즉 그것은 단지 가능성의

---

[12] Carl G. Jung, *Grundfragen zur Praxis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trans. 한국융연구소 C.G. 융 번역위원회 (서울: 솔, 2007), 139.

[13] 이부영, *분석심리학*, 184.

조합이 그렇게 나타나서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이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4]

그 밖에 꿈에는 외상적인 꿈과 텔레파시적인 꿈과 큰 꿈(Big Dream)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과거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면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을 외상적인 꿈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젊은 시절 전쟁에 참가한 퇴역 군인이라든가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꿈 속에서 자가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텔레파시적 꿈이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두 사람 간에 정신적인 교통이 일어나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주 멀리 떨어져 소식을 알지 못하던 아내나 남편 또는 가족의 죽음을 꿈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곤 한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서 어떤 여자가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의 약혼자가 꿈에서 죽는 꿈을 꾼 뒤 실제로

---

[14]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184.

꿈을 꾼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꾼 후 정말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15]

마지막으로 큰 꿈(Big Dream)은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하여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치 소중한 보배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는 꿈이다. 이런 꿈은 대개 신화적 주제를 가진 자기상으로부터 표출된 원형적인 꿈이기 때문에 다른 꿈들과 어렵지 않게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큰 꿈은 인생에서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인생 주기에 있어서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를 넘어갈 때 자주 꾸게 되는 꿈이다.

3. 성서와 기독교 역사 속의 꿈 이해

성서는 꿈, 환상, 어떤 황홀한 현상, 천사의 출현, 그리고 성령 체험을 비슷한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존 샌포드는 꿈은 인간이 잠자는 동안에 자연스러운 무의식 상태에서 겪게 되는 체험이라고 한다면 환상은 인간이 절반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 꾸게 되는 꿈같은 것이라고

---

[15] John Wesley, *The Journal of John Wesley 존 웨슬리의 일기*, trans. 김영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204, 213.

구별하였다.[16] 성서에서는 천사의 출현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구절들이다(마 1:20). 마태복음 처음 두 장에는 다섯 가지 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천사와 꿈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스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것(눅 1:22)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도 발견할 수있다(눅 23:24).

또한 성령의 체험조차도 본질적으로 환상과 꿈의 체험과 비슷한 것으로 성서 기자들은 자주 관련짓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환상 또는 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것과의 비슷한 점들은 에스겔서에서 자주 발견된다(겔 8:3). 신약성서에서 바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고후 12:1) 역사가 누가 역시 예언자 요엘을 인용하면서 젊은이들은 계시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다(행 2:17).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했다. 여기서 꿈이 하나님의 심중을 알아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상 28:6)

---

[16]Sanford, *Dreams 꿈*, 85.

역대상에서 예언자 나단은 환상 가운데 받은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다고 했다.(대상 17:3)

또한 성서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진 이후 그 해석이 악용될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꿈이 지니고 있는 신성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해석자와 꿈을 꾸지 않았는데도 꿈을 꾼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다.(렘 23:16)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장차 일어날 400 년 후의 역사를 보았으며(창 15:12-18)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창 20:3) 야곱은 벧엘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다가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으며(창 28:10-12) 요셉 역시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창 41:!6-25) 욥기의 엘리바스는 환상을 그의 지식의 근원으로 인용하였고(욥 4:12-17) 엘리후 역시 꿈을 인간의 편향된 삶을 벗어나게 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도록 하며(욥 33:12-18) 인간의 영혼을 보존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았고(겔 1:1) 다니엘은 어떤 환상과 꿈도 풀 수 있는 재능이 있었으며(단 1:17) 환상 가운데 꿈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단 2:18)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경험한 예시적인 꿈에 관해 나누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무심코 들었고(삿 7:13-14)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받았다.(왕상 3:15)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행 26:12) 빌라도의 아내는 간밤에 예수로 인하여 사나운 꿈을 꾸었다며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마 27:19)

이상에서와 같이 꿈에 대한 신적인 권위는 성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창세기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성서 전체가 환상인 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종교적 체험은 환상이었으며 성서는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겼다. 이상과 같은 풍성한 자료들을 근거로 존샌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은 존경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서 전체는 하나님이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다."[17] 결론적으로 꿈과 환상은 성경의 주된 주제였으며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

[17] Sanford, *Dreams 꿈*, 101.

성서뿐만 아니라기독교의 초대교부들 대부분은 꿈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며 영적인 세계라고 설명했다.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18] 그 외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인간이 꾸는 강렬하고 원형적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라고 믿었으며 그것을 초대 교회 안에 의식이나 도그마로 확립시켜 나갔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이르러 신앙의 체험이 교리화되고 교권이 강화되면서 꿈에 대한 해석과 예언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13 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꿈은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후 17 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인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꿈에 대한 믿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며 계몽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성서에 나오는 꿈 역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유익하고 적절할 뿐 오늘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시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 후 교회는 소외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잃어버린 소리에 귀를 귀울이기보다 자아에 함몰된 개인을 제도적 신앙생활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이로써 기독교 공동체는 영적인 기반인 종교의 신비적 영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

[18] 심상영, *융의 분석심리학* (서울: 쿰란출판사, 2001), 175.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종교적인 체험보다 딱딱한 신조에, 하늘로부터의 영감보다 신학적 교리에 더 익숙해지게 되었다. 결국 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받아들인 교회는 비이성적인 무의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식이나 도그마에 만족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이 고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소외되고 신앙은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 교회는 성서 속에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박제화된 종교생활에서 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대인들에게 갖가지 정신병리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동안 정신과 의사들은그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꿈을 통하여 무의식의 개념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꿈과 그 꿈의 해석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가 되었다. 교회가 꿈을 다시 회복해야만 성서 속에 빛바랜 유물처럼 남아 있는 꿈과 환상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오늘날 여전히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 인간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도 늘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았다. 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함께 프로이트와 융의 꿈 해석에 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었다. 꿈이 우리 정신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때로는 정신적 장애의 진단과 예후를 아는데도 도움을 주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시적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꿈이 성서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계몽주의 이전 시대까지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졌음을 되짚어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 보아야 한다. 꿈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간에게 꿈은 내가 가야할 개성화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특히 목회자들은 꿈을 성서 속에 가두어 놓기 보다는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꿈을 풀어냄으로써 오늘날 현대인들의 언어로 꿈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고도로 발달한 문화문명 속에 소외된 인간

영혼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영혼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B. 여성성

1.남성의 내적 인격: 아니마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안에 살아있는 여성 원형이다. 원형이란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내적 조건들이다.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되풀이 해온 경험의 총화이며 신화적 요소의 침전물이다. 원형은 그림자와는 달리 인종과 문화, 시대와 지리를 초월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태어나 보편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선험적인 틀이다. 아니마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집단 사회에서의 여성관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양성평등적 여성관과도 다르다. 아니마는 여성으로서의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남성의 무의식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내적 인격이다. 이것을 융은 심혼(Seele)이라고 표현하였다. 심혼이란 정신의 독자성과 자아를 초월하는 정신의 자율성을 소유한 집단 무의식이다. 페르조나는 인종, 문화, 지리, 시대 등 주위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된 것인데 반해 내적 인격인 아니마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집단 무의식의 일종이다. 그것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베일에 싸인 신비로운 원형으로서 그 안에는 자율성과 상징적 예시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창조성과 풍부한 예감능력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마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마음의 구조에서 아니마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의 무의식적 그림자와 존재의 근원인 자기 사이에 걸쳐 있다. 그것은 나와 자기를 잇는 다리와 같다. 에리히 노이만은 아니마를 움직이는 자, 변화를 선동하는자로 표현하면서 그녀의 매혹은 남성을 모든 영혼과 정령의 모험으로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활동과 창조의 모험으로 몰아가고 유혹하고 격려한다고 했다. 또한 발달된 형태의 아니마는 남성의 자아와 자기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남성을 존재의 원천과 연결시켜 준다고 했다.[19] 자아와 아니마 사이에는 개인 무의식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니마를 의식화하기가 어렵다. 마치 양파의 껍질과 같이 그림자가 아니마를 감싸고 있어서 그림자 안에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분석 과정에서 그림자를 모두 의식화한 뒤에야 아니마의 의식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가지 요소는 무의식 안에서 균형이 깨어질

---

[19] Fraser Boa, *Dreams 융 학파의 꿈 해석: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와의 대담*, trans. 박현순 and 이창인 (서울: 학지사, 2007), 164.

때마다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꿈에 서로 교대로 등장하면서 변증법적으로 균형과 의식화를 촉구하며 순환적으로 개성화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성과 아니마는 어떻게 다른가? 박테리아는 20 분마다 둘로 분열되고 곰팡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포자를 퍼뜨리고 히드라는 몸통에서 직접 자손을 싹틔운다. 어떤 생물은 성별의 구별 없이 자웅동체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성생식을 하는 인간의 경우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수정란은 모태에 착상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XX 염색체와 XY 염색체에 의해서 아이의 성이 결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테어난 아기들은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무성적이다. 또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성인이 되어서도 100% 남성도, 100% 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성은 가슴에 여성적인 측면의 흔적인 젖가슴과 젖꼭지를 가지고 있고, 여성 또한 음핵과 같은 남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인간은 신체적인 성으로 인해서 정신세계에서도 뚜렷한 구별이 있게 된다. 우리 몸에 남성과 여성적 요소가 다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영역에서도 남성 안에는 여성적 요소가,

여성 안에는 남성적 요소가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와 반대되는 성은 꿈 속에서 꿈 꾸는 사람의 반대 성의 인물로 나타나곤 한다. 즉 남성의 꿈에는 여성으로, 여성의 꿈에는 남성으로 인격화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꿈에 등장하는 이성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내가 통합해야 할 나의 또 다른 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때로는 파괴적이고 상처입고 병들고 죽어가는 여성으로 때로는 생명력이 충만하고 육감적이며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남성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 원형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아니마의 분화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힐 때 그는 어떤 막연한 그리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포로가 되고 열광, 질투, 편집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성을 발견하고 이성의 인도를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성적인 범주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

---

[20] 김성민, *융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2001), 284.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마는 그림자에 싸여 더 깊은 심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분석을 통하여 아니마를 분화시키고 통합하는 작업은 그림자 작업보다 훨씬 더 시간을 요하고 난해하며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없다. 이부영은 전체성을 이룬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남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만 맞추지 않고 정서적인 취미를 익히며 작고 섬세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성은 여성다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부하며 일을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반대 성을 통합함으로써 남성은 보다 깊은 공감능력과 안정된 정서를 지닌 존재로, 여성은 따지는 여자에서 지혜로운 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다.[21]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자가 볼 때 인간은 양성적인 존재이며 반대의 성을 통합하고 대극을 합일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간이야 말로 융이 말한 대로 전체성(Ganzheit)과 전일성(Einheit)을 갖춘 온전한

---

[21]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114.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무성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이성적인 존재로 발달하다가 결국 양성적인 존재로 죽는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춘기 이후 두 가지 성으로 명백히 구분되지만 그 목적을 이룬 후 중년기가 지나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다는 것이다. 양성성을 통합한 인간은 도덕적 판단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며 성숙한 인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갖고 살아간다. 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 이런 인간은 나와 다른 배경 속에서 문화와 가치체계와 이념이 이질적인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원만하고 개성화된 인격을 보여준다.

폰 프란츠는 여성적 원리와 남성적 원리가 조화롭게 합일되는 성숙한 경지를 강조하면서 균형과 조화, 대극의 합일은 융의 분석심리학 중심에 배치되는 주요 개념이라고 했다. 그녀는 불모의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고양이라는 동물을 예로 들고 있다. 내면의 여성상 즉 아니마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 남성의 경우와 내면의 여성성을 분화시키지 못한 여성의 경우 모두 여성적인 것이 분화되지 못한 사례로서 그들은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한 채 조화와 균형을 잃고

치우친 삶을 살게 된다. 우선 내면의 여성상이 왜곡된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편협한 시각으로 삶을 재단한다. 만약 여성이 남성의 왜곡된 아니마상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그들의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여성 내면의 여성성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폰 프란츠는 여성적 원리란 생산, 풍요와 관련된 신비이며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태동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다. 여성적 원리란 원형의 신비가 배태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며 가장 이상적인 것을 사고하면서도 그 때문에 현실을 희생하지는 않는 지혜라고 했다.[22]

존슨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양성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정신은 대극을 이루는 쌍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형의 에너지들이 의식에 등장할 때는 음과 양, 여성성과 남성성, 어두움과 빛,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처럼 상보적인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23] 인간은 온전해 지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무의식안에 대극으로 숨기고 있다. 무의식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을 통해서

---

[22]Marie Louise von Franz, *The Cat 융심리학과 고양이: 여성적인 것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trans.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1), 92.

[23] Robert A. Johnson, *Inner Work 내면작업: 꿈과 적극적 명상을 통한 자기 탐색*, trans. 고혜경 and 이정규 (서울: 동연 2011), 92.

드러내는데 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들은 서로 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정신 에너지로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치체계에 함몰된 남성들은 내면적이고 열등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성성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물론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본래적인 성인 남성성을 건강하게 잘 계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이 남성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성만을 계발한다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니마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온전한 남성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그림자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자기 마음의 은밀한 동기와 바람, 그리고 아직 살아내지 못한 가능성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니마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안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은 늘 내가 살아내지 못한 삶을 살아내라고 자극한다. 그 힘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꿈 작업에 임할 때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로버트 존슨은그 힘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힘이라고 했다. 아니마는 그 힘이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아니마를 여신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니마만이 남성들의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든다.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를 안에서 찾아야 한다.[24] 그런 면에서 남성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밖으로만 맴돌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직 영혼의 심연에 원래부터 존재해 왔던 그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어떤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개의 경우 원형으로 투사될 때 발견할 수 있다. 남성 안에 있는 아니마는 꿈, 문학 혹은 신화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남성의 감정적인 행동과 삶의 모습 속에서 갖가지 이미지로 투사된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로버트 존슨은 미성숙한 남성이 현실 속의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마를 투사하고 철화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실제로 남자는 자기 아내나 여자 친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마치 그녀가 여신이라도 되는 양 그녀가 자기의 영혼이라도 되는 양 그녀가 자기에게 완전하고 황홀한 느낌을 끊임없이 가져다주기라도 하는 듯이 요구한다. 아니마가 머물러 있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는 외부 환경에서 혹은 여자에게서 자기의 영혼을 찾으려 한다. 그는 자신의 내적인 이상을 저기 밖에 있는 여자에게 투사하는 일에

---

[24] Cited in 심상영,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의 분석심리학*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67.

> 바쁜 나머지 그 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진가를 좀처럼 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더 이상 투사하는 것이 시들해지고 더 이상 낭만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는 심각한 갈등에 빠지고 만다. 마치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다니는 나비처럼 그는 자신의 투사를 따라서 다른 여자에게로 날아가 거기에 안착하려고 한다.[25]

2.꿈 속의 여성들의 역할

꿈은 심혼에서 일어나는 자가 조정 과정이다. 즉 심리적인 균형이 깨어지고 결핍이 발생할 때 보상의 원리를 따라서 대극의 합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특히 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성을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심상영은 아니마 원형이 영혼의 안내자 혹은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면서 그것들은 창조적인 가능성과 닿아 있으며 개성화에 꼭 필요한 매개자라고 했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신곡에서 단테의 영혼의 인도자였던 베아트리체 등은 원형의 운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꿈 속의 여성들이 위와 같이 성숙한 원형상들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연구자의 경험에

---

25 Cited in 심상영,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의 분석심리학*, 67-68.

26 심상영,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의 분석심리학*, 71.

비추어 볼 때 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때로 파괴적인 모성 원형이나 상처입고 병들고 죽어가는 여성의 모습으로, 때로 육감적이고 요염하고 타락한 여성의 모습으로, 때로 자기상에 더 가까운 태모 원형이나 양성성을 이룬 기괴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융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아나미상을 분류하였다. 첫째, 이브는 생물학적인 여성이다. 이브가 남성의 아니마로 나타나면 그녀는 생물학적인 성, 신체적 매력, 모성, 평범한 매력적인 여자의 상일 것이다. 둘째, 헬렌은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다. 헬렌은 일본 기생과 같은 형태의 그리스 고급 창녀이다. 그녀는 함께 성적인 모험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를 나누고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성을 나타낸다. 헬렌은 영적인 동반자이며 낭만적인 섹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이다. 셋째, 기독교의 아니마상이다. 그녀는 최고의 영성을 가졌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고양된 동정녀 마리아이다. 동정녀 마리아는 여성의 어두운 이브와 같은 측면 즉 세속적인 그림자 측면 좀더 생물학적이고 넓은 좀 더 자연적인 아니마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고상하고 이상적이다. 넷째, 지혜의 신인 소피아이다. 지혜는 그렇게 고결한 영성은 아니다. 지혜는 오히려 삶에 더 가깝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 때 그리고 여자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 지혜롭게 알 때 드러나는데 지혜는 남자를 집어 삼키는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27]

꿈 속에서 아니마의 역할은 자아의식와 자기를 연결하는 영혼의 인도자 또는 매개자이다. 아니마는 로고스적 측면에 사로잡혀 있는 남성으로 하여금 성, 육체, 본성, 감정 등 에로스적인 측면을 돌아보도록 촉구한다. 즉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의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결핍된 것을 보상하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육체와 본성을 상징하는 이브에서 시작하여 지고지순한 마리아를 거처서 육체성을 포함한 여성적인 지혜인 사피엔치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아니마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무의식적인 기대와 환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조적인 작업을 통하여 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그것들을 글로 적어본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흙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음악이나 춤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그 뒤 참을성 있게 내면을 성찰하면 심층에 숨어 있던 내용들이 점점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

[27] Boa, *Dreams 융 학파의 꿈 해석,* 148.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을 성찰해야 하며 무조건 그것이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그러한 성찰을 오랫동안 행하면 개성화 과정은 점차 내 삶의 현실이 된다.[28]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양성적이다. 그러므로 꿈에 등장하는 여성상을 나 자신의 일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매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꿈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여성을 등장시키는가? 존슨은 이에 대하여 무의식은 남성의 정서적인 본질, 감정을 존중하고 아름다움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며, 사랑을 통해 관계를 맺는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꿈 속에서 여성을 내세운다고 했다. 그러므로 꿈 속에 이런 측면을 나타내는 여성이 등장할 때는 이러한 측면을 의식화하라는 촉구이자 남성적인 자아의 삶에만 맞춰져 있는 좁은 렌즈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2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무의식의 심층과 표층적 자아 사이의 영혼의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더 깊은 세계로 나의 존재를 인도한다.

---

[28]Marie Louise von Franz, *Archetypische Dimensionen der Seele* (Einsieden: Daimon Verlag, 1994), 336-50, cited in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2006), 109-10.

[29] Johnson, *Inner Work 내면작업*, 93.

이 때 나타나는 여성들은 융의 분류 대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때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때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그 여성들은 어떤 때는 개성화 과정에서 순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역기능을 하는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다. 또한 내가 자주 만났던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현실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신화나 동화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마법적이고 반인반신적인 존재로 등장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모습보다도 꿈에 나타나는 모든 여성들은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나를 진정한 자기로 이끌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여 대극의 합일을 이룸으로써 마침내 본래적 전인성을 회복하여 개성화를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3.분석심리학과 여성신학

프로이트가 20 세기 사상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점은 그동안 금기시 해 왔던 성욕과 숨겨져 있던 무의식을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이다. 그의 학문은 처음부터 여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정신분석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최초의 논문은 5 명의 여성 히스테리 환자에 대한 분석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여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성 성욕에 관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1920 년대에서

1930 년대에 걸쳐서 여성 분석가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카렌 호나이는 정신분석학 저널이 실린 글에서 정신분석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심층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성이란 남성의 관심을 대변하는 파편적이고 특정 가치가 스며들어 있는 편협한 설명이라고 주장했다.[30]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이 대두된 1960 년대 여성주의자들은 정신분석의 오디이푸스 콤플렉스, 거세 콤플렉스, 남근선망을 비판하면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여성의 사회적 가능성을 국한시키고 남성우월주의를 지지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분석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은 라캉으로 하여금 남근과 팰러스를 하나의 기관과 기호로 구분하게 하였고 그는 정신분석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성의 억압적 단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분석은 인간 주체를 다루는 과학이 아니라 남성 주체와 남성 시각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에게 여전히 지배적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 분석은 도저히 성차와 여성성을 묘사할 수 없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0]Elizabeth Wright, *Feminism and Psychoanalysis Critical Dictionary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trans. 정찬부 and 정성호 (서울: 한신 1997), 214.

반면에 융의 분석심리학은 여성에 대하여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초기 프로이트와 서신 왕래를 통하여 학문 세계를 교류하였던 융은 1906 년부터 1913 년까지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융은 프로이트와는 대조적으로 인간 정신 생활에 미치는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한 반면에 성욕의 역할은 중시하지 않았다. 융에 의해서 여성성의 소중한 가치가 발견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매료되어 융 분석가가 되었지만 융 자신은 분명 오늘날 흔히 말하는 여성주의자는 아니었다. 폰 프란츠, 엠마 융, 바바라 한나 같은 1 세대 여성 분석심리학자들과 시노다 볼렌, 레오나르드 울라노프와 같은 20 세기 후반기 여성 융 이론가들은 그가 아니마 아니무스 이론을 통하여 여성에게 강요된 역할 정의로부터 혹은 스스로 입고 있는 심리적 보호장치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틀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융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약한 면을 보완하는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 여성 안에 존재하는 아니무스를 강조하면서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개성화는 자기 안에서 전체를 통합함으로써 이루진다고 보았다. 그것은 곧 약하고 열등한 것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분화 발전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과정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통한 온전함의 추구를 남성과 여성의 합일로 보지 않고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의 인식과 통합을 통한 개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양성성을 완성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성성이란 남성적이라 불리는 특성들과 여성적이라 불리는 특성들이 한 개인이 함께 지니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31]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성성이란 자웅동체 또는 양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양성성을 뜻한다. 여성성은 감상적이고 감정적이며 아타적이고 관계중심적이다. 반면 남성성은 목표지향적이고 단언적이며 자기개발적이고 타인과 분리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가부장적인 가치체계에 익숙한 인간들은 남성적인 것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신화와 문학 속에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의 가장 우수한 특성을 결합한 양성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융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우월주의를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 뿌리박힌 구조화된 성차별로 인해 여전히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저항운동이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한 반응이라고 본다.

---

[31]고미라. "양성성과 여성성," *여성과 사회* vol. 7 (1996): 127-37

현대 여성주의자들은분석심리학이 남성의 상태에 대해서는 썩 잘 묘사하고 있지만 여성의 정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융이 발견한 여성성의 개념을 생물학적 성 결정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융의 이론 자체를 거부한다.[32]

여성주의자들은 모든 현상을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여성들도 남성의 특징을 개발해야 평등해질 수 있고 여성적 덕성이 비록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어도 현실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해롭게 작용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성주의자들 가운데는 여성적 자비심과 모성을 강조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여성적인 것의 특성들이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내면화하면 할수록 여성들은 희생과 실패로 내몰리게 된다고 보았다.

아니마 이론은 표면적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각자의 본성대로 살되 각자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성을 통합하여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이란 인간의 특징은 성에 의하여

---

[32] 심상영, *융의 분석심리학*, 132.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생명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에 의해서 남녀가 구별되는 것처럼 개체의 모든 행동 양식은 결국 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함수관계를 배제하는 입장을 강화시키면서 인간이 환경을 통해서 변화를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에게 이런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이다. 성기로 구별되는 생물학적인 구별는 그저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 그것이 심리적 구조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은 그들이 가부장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생물학적인 성이 전통적 여성성과 동일시 되어온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성의 문화적 역할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여성주의자의 주장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뿐 정신적인 영역에서까지 남녀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도 창시자의 이론을 수정하여 성욕을 생물학적인 영역으로부터 추방하고 오직 정신의 영역으로 후퇴시켰다. 여성주의자들이 볼 때 남성과 여성은

태초에 집단 무의식 안에서 원래 하나였고 남성과 여성은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자들은 성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고 본래의 여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으며 여성성에 대한 개념조차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분석 심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차별의 이유로 삼아 성과 외모와 인종의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정당화의 과정이 여성주의자들이 응시하고 있는 가부장주의라는 남성지배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제도나 규범을 정당화하여 그것을 당연시 하면서 남성지배구조를 영속화하려는 구조적 악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환경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정신과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21 세기 공헌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분명 여성주의는 그동안 자명하게 여겨왔던 이론의 기저를 탐색하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던 현상의 허구와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있다. 역사 속의

가부장주의는 잘못된 지식체계와 결합하면서 하나님의 양성평등적 질서를 왜곡시키고 남성중심주의의 권력 구조를 확대 재생산해왔다. 그런 면에서 생물학적 결정론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분석심리학의 아니마 이론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오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여성신학자인 강남순은 오늘날 인간에게 소위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으로서 하나의 성품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정신세계에서 남녀의 차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녀는 소위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이미지들은 한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전적인 자아로서의 인간으로가 아니라 한쪽 면만을 고수해야 하는 분리된 자아로서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33] 그녀는 보브아르의 개념을 인용하여 여성신학적 입장에서의 인간을 독립적 자아로서의 인간, 관계적 자아로서의 인간으로 구분한다.

그녀는 타자로서의 여성이 느끼는 자기 소외를 지적하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내재 속에 갇힌 여성들이 타율적으로 강제된 여성성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

[33]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66-67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적 자아, 비분리적 자아로서의 인간이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페미니스트 심리학자들이 분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하고, 분리보다 연결을, 개인보다 관계에 대한 인식과 또한 인간이 상호 의존한다는 인식이 비로소 성숙한 인간을 만든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새로운 인간 이해는 실존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나 또는 타자와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며, 이러한 연결됨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주어진 사실임을 발견하는 것이다.[34]

이상의 여성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융의 아니마 이론은 생물학적 결정론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융은 당시 힘을 얻고 있던 여성주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현대 여성들은 수동성과 무의식성을 깨뜨리려 하며 남성의 등뒤에 숨으려 하지 않고 남성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본래의 성이 지닌 특성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반박했다.[35] 이는 한국 최초의 융 분석가였던 이부영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는 내분비계의 분화로 결정된 생물학적인 남녀

---

[34] 강남순, 171-74.

[35] C.G.Jung, *Die Frau in Europa* (Zueich: Walter Vertag, 1974)140, cited in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56.

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은 시대문화의 변천에 따라 성에 따르는 사회적 역할과 그 사회의 남성관과 여성관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36] 인간이 각자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을 무시할 때 남성의 나약함과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해로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특성은 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분석심리학과 환경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여성주의는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분석 심리학이 융이 살던 당시 20 세기 초반의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놓고 그 사회적 역할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가부장 사회의 남성들이 심어 놓은 왜곡된 편견이라고 보는 시각도 맞다. 또한 권력 구조 속에 힘을 장악하고 있는 남성들이 불평등한 현실을 그대로 방관한 채 여성성을 남성성에 포함시킴으로써 좋은 것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도 있다.

연구자가 볼 때 분석심리학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성 결정론은 여성신학적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남녀의 성 자체를 해체시키는

---

[36]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108.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성성의 관점에서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여성주의자들 가운데 양성성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여성주의자들 가운데 여전이 이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석심리학과 여성주의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의 억압적 성역할에 여성들을 가두어 두려는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양성성의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평등과 차이라는 딜렘마가 잘못된 이분법과 대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볼 때 균형잡힌 모델은 남성은 여성성을 통합하고 여성은 남성성을 통합한 양성적인 모델이다.

프로이트 이후 심층심리학은 지난 1 세기 동안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의 분석심리학에 의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여성성의 소중한 가치가 발견되었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융 분석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 동안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여성들의 입장을 수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연구자는 이 논문이 남성의 꿈에 작용하는 여성성의 원리를 발견하고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분석심리학이 과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라는 오해와 오명을

벗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개성화를 돕는데 이바지하는 양성평등적 심리학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분석심리학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이 시대 가부장주의의 왜곡된 불평등 구조를 깨뜨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심리학으로써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풍부한 자원을 통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Chapter III

연구 방법론(Methodology)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목회자의 꿈분석에 나타난 여성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융 학파의 꿈분석과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A. 융 학파의 꿈 분석

"우리가 불러 보았든지 안 불러 보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Vocatus atque non vocatus, Deus aderit)[37] 이 말은 쮜리히의 쿠스나하트에 있는 융의 저택 현관 문 위에 새겨져 있는 글귀이다.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들려온다고 믿었던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진리였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의 전 삶을 통하여 체험했던 꿈들과 환상들 및 음성들을 그려내고 있다. 또 그 자신이 정신과 의사로서 일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의 꿈을 분석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렇다면 융 자신과 그를 좇는 융학파 분석가들의 꿈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샌포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38]

---

[37]Wallace B. Clift, *Jung and Christianity: The Challenge of Reconciliation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trans. 이기춘 and 김성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147.

[38] Sanford, *Dreams 꿈*, 122-24.

첫째, 꿈 꾸는 사람의 의식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몇 살이며 생활 환경은 어떠한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꿈꾸기 바로 전날이나 몇일 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등등의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대답하는 것이야 말로 꿈을 이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왜냐하면 꿈은 인간의 삶이라는 장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 가지 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꿈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연속되는 일련의 꿈을 고찰한 후에야 어떤 특정한 꿈이 암시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꿈을 연구하면서 파편적 해답을 얻었다가 몇 개월 후에야 그 사람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통해 꿈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꿈은 마치 장면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연속적인 영화와도 같다. 그러므로 하나의 꿈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내적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어떤 영화에서는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영화를 보면 당황스러워져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한다.

셋째, 꿈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 만약 꿈꾼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전에 한번 살았던 집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그 집에서 살았을 때의 생활 환경이나 경험 등을 연상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꿈 해석의 기술은 자신이 많은 꿈을 꾸어 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직접 자신과 자신의 꿈을 그 분야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 봄으로써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집단무의식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꿈에 등장하는 상징은 정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꿈 꾸는 사람의 개인적 자유 연상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초월적인 정신세계에서 유래된 꿈의 상징들을 이해하려면 종교나 신화에서 그와 유사한 상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꿈을 이해하는데 신화가 왜 도움이 되는가? 신화란 집단적인 꿈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거치는 심리적 발달의 한 단계를 묘사한다. 그런 점에서 신화는 모든 사람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본적이고 정신적인 위기에 처하여 삶의 중대한 발달단계에서 변화에 방해를 받게 되면 집단 무의식이 원형적인 꿈을 꾸게 만든다.

이 경우에는 인간의 역사, 신화, 종교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리의 삶과 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대신에 확충(Amplic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유연상은 하나의 상징에 대해서 떠오르는 연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등장한 상징의 의미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무의식에서 떠오름으로써 본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비약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꼬리를 물면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연상해 내기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생각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꿈에 나타난 이미지나 행동이나 상징 등을 종합하여 그 모든 연상을 갖고 무의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을 확충이라고 말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토양에서 자란 융은 자유연상을 통해서 상징의 다양성과 복잡성과 심오성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확충이라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심리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과 신화와 민담과 종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샌포드(John A. Sanford)는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변증법적인 과정 또는 합성의 과정을 거쳐 무의식의 의식화 즉 인격의 완성을 향해 움직인다. 이로써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예정하신 전체성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39]

B. 질적연구방법론

1. 일반적 이론

질적 연구는 복합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현장 조사에 참여하면서 연구 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한 뒤 참여자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면서 귀납법적으로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정보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묘사적이고 설득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 모든 과정을글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0]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유형은 전기,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분야로는 사회복지학, 문화학, 역사학, 간호학, 교육학, 인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실천신학분야에서도 연구의 질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론적이고 실증주의적 분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질적 연구는 객관과 데이터에 따라 어떤 현상을

---

[39] Sanford, *Dreams 꿈*, 129-33.

[40]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trans. 조흥식 et al.(서울: 학지사, 2005), 43.

수치로 설명하려는 접근 방법과 달리 관찰자가 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들의 숨은 언어를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집한다. 그 면접은 심층적이고 반구조화된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제시하였지만 1 차 논문 수정 과정에서 방법론을 사례 연구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곧 연구 주제의 독특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공히 사용되는 면접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의 대표적 유형들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 방법론을 선택하여 그 원칙과 순서에 따라 연구자의 꿈 분석 자료를 다시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질적 연구의 일반적 방법론을 활용하되 다양한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자료 분석에 기술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구체적이고 한정된 맥락 속에서 기록된 꿈 자료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번 연구는 면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꿈 자료를 다시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상학적 방법론을 주로 활용하였고 사례 연구와 근거이론의 방법론도 부분적이고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꿈 분석에 담긴 본질적인 불변구조 또는 경험의 중심적인 기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물론 꿈 분석 자체의 모호성과 연구자의 경험적 한계로 인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직관적으로 사실 그 자체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된 체험 그 자체를 변형시켜 그 본질을 다시 텍스트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꿈에 등장하는 여성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본질적인 측면 즉 의미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2. 자료 선정

연구 자료는 주제의 생생한 체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질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41]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 연구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정보를

[41]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37.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9 년부터 기록해 놓은 꿈 분석 자료로서 연구자가 자기 성찰을 위해서 꿈 분석을 받은 후 그 내용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었다. 물론 융의 분석심리학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론적 깊이가 더해지면서 분석가를 통한 교육 분석의 내용도 좀 더 심층적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자료가 정신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에 이루어진 교육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 년에 걸쳐서 수집된 많은 꿈 분석 자료 자체가 중년기 목회자의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성을 연구하기에 충분히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 분석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고정된 선형적 접근보다는 분석적인 원 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분석의 다양한 측면을 거치면서 순환적인 과정을 되풀이한다. 나선형의 첫번째 고리인 자료 처리로 과정이 시작되는데 먼저 연구자는 분석을 위해 수작업으로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 파일링들을 적절한 원문의 단위로 전환시킨다.이 후 연구자는 축어록 전체를 여러번 읽고 전체 자료를 부분적으로 나누기 전에 전체 자료의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세부 내용에 몰입한다. 분석자료에는 분석 현장의 분위기나 그외 상황을 여백에 세세하게 기록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동시에 자료를 분석하면서 떠오른 짧은 문장, 생각, 핵심적인 개념들을 메모한다. 이 후 자료에서 제시된 더 큰 생각들을 반성하고 일차적인 범주를 구성한다. 이들 범주는 그 수에 있어서 대략 10 개 정도로 매우 적으며 그 범주를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증거들을 찾는다. 이러한 과정은 나선형의 읽고 메모하는 고리에서 기술, 분류, 해석 고리로 옮겨 가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고리에서 범주 형성은 질적 연구 분석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연구자는 꼼꼼히 기술하고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주제와 차원을 발전시키고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와 기존 문헌에서의 관점에 비추어 해석한다.[42]

연구자는 꼼꼼한 기술, 분류, 해석, 혹은 이 분석 절차들의 조합을 사용한다. 먼저, 꼼꼼한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물, 장소, 사건이라는 맥락 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분류는 정보의 범주, 주제, 차원을 찾으면서 원문이나 질적 정보를 나누어 가는 것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의 형식인 분류는 5~6 개의 일반적인 주제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제는 그 밑에 하위 주제들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능한 작고 처리가능한

---

[42]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179.

주제군을 만들어낸다. 셋째, 해석은 자료를 통해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해석에는 감, 통찰, 직관 등에 기반한 여러 형식이 있다. 이 시점에서 연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이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더 큰 의미들을 형성하게 된다. 나선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원문, 표, 그림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가장 추상화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덜 추상화된 개념으로 도식화하여 연구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 그림은 정보의 다양한 원천으로 구성되는 원자료로 시작하여 여러 개의 구체적인 주제에서가장 일반적인 주제로 확대되는 귀납적 분석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은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 영역에서 사용된 어떤 문학적 도구를 다른 영역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질적 연구자는 은유의 분석으로 형성된 전체 연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43]

질적 연구 분석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혹시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경험의 실재를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서로 남아 있는 자료가 당시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기서

---

[43] Creswell, 180-82.

내려진 결론들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는가? 구조적 진술 상황이 구체적이고 다른 상황의 경험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가?[44] 이런 질문 앞에서 연구자는 개인적 경험을 괄호치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료 그 자체에 충실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현상의 의미 자체를 밝혀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C. 연구진행과정

이번 연구는 논문의 특성 상 연구의 독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출발하게 되었다. 2009 년 처음 교육분석을 받으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목회자로서 연구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진지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유로 매번 분석에 임할 때마다 영성수련을 받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참여했고 분석가의 조언을 한자 한자 받아적었다. 그 후 그것을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면서 반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곤 했다.

이론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분석심리학을 공부한 것 역시 논문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한국심층심리연구소에서 교육분석을 받기 2 년 전부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유영권 교수를 통하여

[44] Creswell, 151-52.

집단 상담과 상담실습을 배웠고 정석환 교수를 통하여 융의 분석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현상학적 방법론과 근거이론과 사례연구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 후 분석을 받으면서도 한국심층심리연구소에서 융 원전강독과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연구하였다. 무엇보다도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수적인 신학의 틀을 깨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오늘날 여성신학을 포함하여 실천신학의 다양한 신학의 조류를 이해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초 위에 지난 6 년 동안 받은 꿈 분석 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150 여페이지의 파일로 저장된 전체 자료를 문서로 프린트 한 후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중에 그림자로 나타난 남성들과 아니마로 표현된 여성들이 등장하는 꿈들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체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꿈들을 오려 내었다. 그러나 그림자로 표현된 남성에 관한 꿈들이 너무 방대하여 처음 계획을 변경해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즉 남성 안에 있는 남성성인 그림자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남성 안에 있는 아니마 즉 여성성 연구로 논문의 주제를 명료화하였다. 이제 여성과 개성화와 관련된 꿈들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구절

156 개를 추출한 뒤 그것을 다시 4 개의 영역과 8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함축적인 용어로 바꾸었다. 이로써 나의 꿈 체험의 핵심 개념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하여 구조화하였고 최종적으로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성이 어떻게 개성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 원리를 도표로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나의 연구를 돌아보면서 중년기 목회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꿈 분석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제언하였다.

Chapter IV

연구의 결과(Results of the Project)

A. 꿈꾸는 자의 위치성

서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연구자는 1984 년 대학에 입학하여 1992 년 졸업했으며 1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뒤 A 선교단체에서 전임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1994 년 선교사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1996 년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귀국하여 국내 캠퍼스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다. 2000 년 선교단체의 분열 과정에서 신학공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2002 년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다.

연구자는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선교단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보편적이고 중심에 선 신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타교단과 교파 그리고 세계 교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해룡 교수를 만나면서 영성신학과 분석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년 동안 네 과목의 영성 수업을 들으면서 영성수련을 받았고 그 후 분석심리학과 영성을 연계하여 한국 개신교 내에 모새골이라는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던 임영수 목사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의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2006 년 온누리 교회

교역자로 부임 한 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공부를 마쳤고 계속해서 2009 년부터 한국심층심리연구소에서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교육분석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실천신학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3 년 온누리 교회의 지교회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온누리 비전교회 담당목사로 파송받아 현재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꿈 분석기간에는이상의 성장 배경과 현재의 위치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중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꿈 속에 남성과 여성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꿈은 그 대상자를 통한 나의 경험과 인상들이 나의 무의식의 필요적 요청에 따라서 상징으로써 표현되었을 뿐 그 당사자의 실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꿈의 분위기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할 때 혹시 꿈에 등장하는 그들의 사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B. 분석의 상황적 구조의 진술

<표 1>꿈분석에 나타난 구성 요소

주제	범주	의미 단위
긍정의 길	여정의 시작	첫번 째 꿈 이야기 삶에 대한 경고 외도하는 남자 아니마에 사로잡힌 남자
	부정적 아니마와의 만남	파괴적 모성원형 부정적 아니마
부정의 길	광야의 삶	상처 입은 아니마 병든 아니마 죽어가는 아니마
	지하세계로의 하강	아니마의 죽음 아니마의 자살 죽음과 부활의 입문의식 동물로 나타난 아니마
창조의 길	긍정적 아니마의 수용	어리고 젊은 아니마 하와로서의 아니마 헬레네로서의 아니마 사피엔치아로서의 아니마
	자아와 자기의 연결	Soul Guide
변모의 길	수동적 팽창	생산성 생명의 가능성 생명력
	본래적 전인성의 회복	태모원형 양성성 대극의 합일 개성화 Self 상 마지막 꿈

1. 긍정의 길

융은 꿈 중에서 첫 번째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번 째 꿈은 종종 앞으로의 분석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분석을 받으려는 결심은 정서를 불안하게 하는데 이는 분석을 받겠다는 결심이 원형 상징의 연못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심층 차원을 휘저어 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첫 꿈은 종종 전체 분석 과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분석가에게 꿈꾼 사람의 심적 갈등에 대한 통찰의 열쇠가 되는 집단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45] 융은꿈 가운데 최초의 꿈 즉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의 꿈은 중요한 원인적 요소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말했다.[46]

그런 점에서 꿈 분석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새로운 긍정의 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느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영웅의 이야기이다. 첫번 째 꿈은 전체 분석과정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성취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해준다. 물론 그 여정을 시작하는 피분석가의 무의식적인 상태는 완성된 영웅의

---

[45] Carl G. Jung et al., *Man and His Symbols 인간과 상징*, 434.

[46] Carl G. Jung, *Grundfragen zur Praxis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trans. 한국융연구소 C.G. 융 번역위원회 (서울: 솔, 2007), 123.

모습이라기보다는 미숙하고 형편없는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곧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여성상을 만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첫번째 범주는‘여정의 시작'이다. 여기서는 첫번 째 꿈 이야기, 삶에 대한 경고, 외도하는 남자, 아니마에 사로잡힌 남자 등 3 가지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a. 첫번 째 꿈 이야기

장례와 피난 행렬과 초라한 여성들은 현재 목회자로서 탈진 상태에 있는 나의 현실을 반영한다. 무의식은 내가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는 S 목사를 초라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성성을 부축해 달라는 간청에 대해서 내면의 소리에 무관심한 나의 인습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칼로 막아서는 나의 보호자보다 검정 망토를 쓴 내 안의 그림자가 더 강력하다. S 목사를 죽인다는 것은 그와 같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나의 왜곡된 무의식적 갈망은 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꿈의 메시지는 외적으로 성공한 S 목사를 우상화하면서 그를 닮아가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 우상을 베어 버리고 지쳐 있는 여성성을 돌보며 목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나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례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피난민처럼 초라하고 지쳐보였다. 나는 고대 왕들이 묻혀있는 무덤같은 곳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솜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있는 S 목사 부부를 보게되었다. 밖으로 나오자 한 남자가 나에게 검은 옷을 입은 두 여자를 가리키면서 집이 없으면 저들을 좀 부축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목회자를 어떻게 보고 저런 초라한 여자들을 부탁하는거야?' 그의 간청을 외면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검정 망토를 쓴 자객이 나의 길을 가로 막아섰다. 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곁에 서있던 내 하인이 칼로 그를 저지했지만 자객은 내 하인의 칼을 입에 물더니 순식간에 두 동강을 내고 말았다. 동시에 그는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가 단숨이 S 목사 부부를 한 칼에 베어 버렸다.[47](1 회기)

b. 삶에 대한 경고

반지는 부부 사이의 관계(Connectedness)를 상징한다. 아내의 반지가 빠져 다리 밑으로 굴러가 강물로 떨어질 것처럼 위태하다는 것은 현재 연구자의 결혼관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Dream Ego 가 조심스럽게 다리 난간으로 내려가 그곳을 주워 온다는 점이다. 당시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원가족과 미분화된 상태로 사실상 심리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있어서 몇 년 동안 심리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8 형제 중에 7 째로 태어난 아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온 가족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47] 꿈의 내용은 이탈릭체로 표기하였다.

버팀목이 되어 살아 왔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상경한 뒤에도 아내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온 큰 언니 집에서 다시 10 년을 얹혀 살았고 그 후 연구자와 가정을 이룬 후 우리 부부는 다시 10 년 동안 큰 언니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레미 브륄은 이러한 가족 관계를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린이의 의식이요 어른의 무의식 상태이다. 이것은 객체와 주체의 미분화된 상태로서 원시인의 심리적 특징이며 상대 객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전이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 관계를 복잡한 양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아내의 상태를 바꾸려 하거나 지적하려 했을 때 그녀의 콤플렉스가 작동하여 반발하거나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이 꿈은 Dream Ego 가 반지를 다시 주워 옴으로써 결혼관계의 위기를 경고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좋은 예후를 보여주고 있다.

> *나는 한강 위로 나 있는 좀 오래되고 큰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인도 옆으로는 얕은 방벽이 있고 그 아래에 긴 목재로 만든 난간이 있다. 갑자기 내 왼손에 끼고 있던 쌍가락지 반지 중에 아내의 반지가 빠지더니 다리 밑으로 굴러가 목재 사이에 서 있다.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저 반지는 한강 속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벽을 건너가 난간으로 다가가 살며시 반지를 쥐고 다시 다리 위로 올라온다.*(125 회기)

c. 외도하는 남자

중년이 되면 외도 심리를 느끼게 된다. 이는 로고스 원리(Logos Principle)가 강화되고 아니마가 상실되면서 생명수(Water of Life)가 발라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되면 새로운 느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험을 추구하게 된다. 기독교 윤리에서 외도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부정적 역동이 외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 *D 목사가 외도를 한다고 다른 목회자들이 수군거린다. 참 곤욕스러운 것 같다. 나는 그것이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한 여성과 빈 건물로 들아간 뒤 문을잠근다. 정말 그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57 회기)*

d. 아니마에 사로잡힌 남자

이것은 영웅의 이야기이다. 삼손과 같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대단한 열정을 소유한 영웅이 내 안에 살고있다. Dream Ego 는 이런 남자를 의아해 하며 불쌍히 여긴다. 여자는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자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4~50 대에 외도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다. 나의 자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에게 그런 여성이 다가올 때 삼손과 같이 윤리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옥에 갇혀 있는 두 남녀가 탈옥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그 여자 없이 살 수 없다며 철조망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든다. 여자는 죽고 싶어하지 않지만 남자는 그 여자와 함께 죽는 것도 불사한다.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를 보니 참 가련하다. 철조망에 몸이 찢겨 피가 나는 모습을 보자 너무 끔찍하다. 왜 여자에게 저토록 목숨을 거는 지 의아하다.(90 회기)

두번째 범주는 '부정적 아니마와의 만남'이다. 여기서는 파괴적인 모성원형과의 만남, 부정적인 아니마와의 만남 등 2 가지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파괴적 모성원형과의 만남

마녀는 악의 여왕이며 파괴적인 모성상(Terrable Mother)이다. 이는 부정적 감정의 측면으로서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스스로 칠칠맞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깎아 내리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한다. 어머니 역시 복수의 여신 칼리처럼 손에 잡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은빛은 달빛이요 무의식의 영역으로서 Dream Ego 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이 될 위험성이 있다.

갈색으로 된 빌라에 도착해 보니 그 안에 한 여인이 이아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있다. 조금 지나 보니 그녀는 마녀로 변해 있다. 나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 창문으로 빠져나와 거미처럼 벽에 붙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 이 때 마치 자석처럼 다시 마녀에 의해서 창문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다시 그 집을 보니 은색으로 변해 있다.(102 회기)"

어머니가 사람의 횡격막이 위치한 곳에 손을 넣어 내장을 꺼낸다. 사로잡은 사람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다. 몇 사람이 그렇게 내장이 제거되어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가 복수의 여신 칼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124 회기)

b. 부정적인 아니마와의 만남

꿈에 N 목사가 부정적인 아니마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녀에 대한 연상은 분노, 장악, 감정기복, 조울증, 시기, 질투, 공산당 간부 등이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에로스적인 측면이 없는 전형적인 부정적 아니마이다. 부정적인 아니마상의 특징은 짜증이다. 실제로 그녀는 부정적인 아니무스가 팽창된 병적 인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꿈은 Dream Ego 가 더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80 먹은 노파는 내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아니마상이다. 아마 이 꿈을 꿀 당시 내가 어두운 기분(Dark Mood)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당시 스스로를 볼 때 초라하고 왜소하고 상처입고 쓸쓸하고 음울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꿈에서 Dream Ego 는 부정적인 아니마를 죽인다. 죽었다는 것은 극복되었다는 의미이다.

어린아이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광장에서 나는 군중들 틈에 끼어 걸어가고 있다. 이때 N 목사가 나를 보자 깜짝 놀라 화를 내고 가 버린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반응에 불쾌감이나 불안이나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104 회기)

N 목사가 담임목사를 찾아가 나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한다. 그녀는 몇 몇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밧줄로 꽁꽁 묶은 뒤 지하실로 끌고 간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벌떡 일어나자 밧줄은 저절로 끊어지고 순간적으로 나는 바닷가에 와 있다. 나는 배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해변에 도착해 보니 거기 멋진 별장이 있고 그곳에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방들이 있다. 나는 이미 많이 늙었고 교회를 은퇴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나는 외롭지 않다.(86 회기)

한 여자가 나를 좇고 있다. 그녀는 집요하게 나를 따라온다. 마치 지하에서 온 마녀같다. 나는 필사적으로 지상세계로 빠져 나오고 문을 닫는다. 그런데 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다. 그도 그녀와 한 패인 것 같다.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곳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내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십여 차례 때려 쓰러 뜨렸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녀는 80 먹은 노파라고 말해 준다. 벤취에 앉아 있는데 30 대 여성이 내 곁으로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위로해 준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때린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잠시 후 창문 밖으로 빨간 손수건이 달린 줄이 내려온다.(82 회기)

2. 부정의 길

자기 실현의 여정을 시작한 영웅은 파괴적인 모성원형과 부정적인 아니마의 격렬한 거절과 공격 앞에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목숨을 부지한 채 광야로 쫓겨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밤을 경험한다. 부정의 길에서 경험하는 첫번 째 범주는 광야의 삶이다. 이곳에서는 상처 입은 아니마, 병든 아니마, 죽어가는 아니마, 늙고 약한 아니마, 열등하고 가련한 아니마 등 5 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병든 아니마

꿈에 병든 여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사슬에 매여 끌려 오는 젊은 여자는 상처 입은 아니마(Wounded Aima)이다. 그녀는 Dream Ego 에게 눈길을 주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다. 꿈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도 있어야 하고 꾀도 있어야 한다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다. 술취한 여성은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이다. 꿈은 청소년기 상처 입은 장소에서 상처 입은 여성을 만나게 하고 있다. 그녀는 원래 젊고 활달하고 건강한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 키도 작고 성적인 매력도 없고 약간 내성적인 여자가 되어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를 당연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Dream Ego 는 그녀를 유혹하려고만 할 뿐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로 인해 오명을 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도 상처 입은 영혼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치려고만 한다. 매정하고 음흉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다. Anima Soul 은 나의 감정적인 측면(Feeling Side)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곤고하고 병들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꿈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희망과 미래를 상징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먼저 상처 입은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과는 에로스를 상징한다. N 에 대한 연상은 곧 나의 영혼이

사랑이 많고 순진하고 밝고 착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모습을 N 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영혼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성도들이사슬에매인한여자를끌고온다. 그 젊은 여자는 나를 발견하자 마치 너만은 꼭 살아달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간다.(6 회기)

청소년 시절 살던 00 동 재리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술에 취한 한 여자가 나를 부른다. 글래머 하지 않지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귀여운 얼굴이다. 그녀가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동안 술에 취해서 그런 지 내 몸에 그녀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다. 내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려 하자 뿌리치면서 자신은 지금 생리 중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하숙집으로 나를 데려갔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어느 새 나의 존재를 잊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해 재빨리 그곳을 떠나려 한다. 그 때 얼굴이 익숙한 한 남자가 나와 마주친다. 그는 나에게 이곳에 사느냐고 묻는다. 나는 혹시 그에게 오해를 살까봐 이곳에 온 이유를 대충 둘러대고 정류장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떠난다. 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오빠를 부른다. 나는 빨리 도망쳐야 한다.(82 회기)

N 이 언덕 길을 내려온다. 얼굴은 수술 이후 약간 부어 있다. 그녀는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나는 그녀와 마주칠 자신이 없다. 그녀도 나의 시선을 피한다. 그런데 그녀가 나 있는 쪽으로 다가 오더니 내 옆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85 회기)

N 이 나와 우연히라도 마주치고 싶은것일까? 나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병세가 있어 안스럽다. 나는 철모를 깊이 눌러 쓰고 못 본 채 앉아 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하고 집안으로 들어 간다. 그녀는 사과를 수 십개 넣은

망을 들고 휘청거리면서 다시 나와 길을 내려간다. 그 모습이 안스럽다.(81 회기)

젊은 여자가 나와 함께 월드컵 응원을 하러 시청 앞으로 나온다. 그녀는 혈루병을 앓고 있다. 그녀와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녀에게 두 명의 조카들이 함께있다. 나에게는 세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그녀는 새벽 5 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나왔기 때문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려져 있다.(64 회기)

b. 상처 입은 아니마

우는 여자, 상처 입는 여자, 아픈 여자들이 등장한다. 20 대 후반의 여자는 왜소하고 성적 매력이 없고 병색이 있어 보인다. 상처와 슬픔이 있는 여성인 듯 하다. 두번째 등장하는 30 대 중반의 여자은 젊지는 않지만 통통한 얼굴에 나름 매력이 있다. 그런데 그녀는 성철 스님의 아기를 데리고 타락한 승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린다. L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술을 팔고 있는 장면 역시 영혼이 곤고하고 피폐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돈은 정신적 에너지(Psychic Energy)를 상징한다. 영혼은 정신적 힘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마비시키는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 바닥에 펼쳐져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한다. 그런데 20 대 후반의 한 여성이 밖에서 커튼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불 옆에 눕는다. 나는 그녀의 몸을 더듬거린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문이 열리면서 두 명의 중이 들어온다. 한 사람은 가사를 입었고 한 사람은 평상복이다. 그들은 들어오자 마자 연거푸어 담배를 피워 댄다. 그들은 나 역시 중이라고 생각했는 지 성철스님이 언제 오느냐고 묻는다. 잠시 후 또 다른 중이 들어온다. 그들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매춘을 위한 것인지 도박을 위한 것인지 왜 여기 모였는 지 모르겠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아기를 포대기에 엎고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는다. 30 대 중반 정도되는 여성으로 아까 그 여성보다 약간 몸이 더 뚱뚱하다. 사람들은 그 아기가 성철스님의 아기라고 말한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으로 메이크업 한 상처의 흔적이 보이고 그녀의 눈에서 수돗물처럼 눈물이 펑펑 흘러 내린다."(133 회기)

L 은 바에서 술을 팔고 있다. 그녀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 분명 돈이 필요한 처지가 된 것 같다.(99 회기)

c. 죽어가는 아니마

내적 인격인 아니마가 늙고 약하고 죽어가고 있다. 감정, 몸, 본성 등 여성성이 생명력(Vitality)를 잃고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다. 다정하고 포근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태모(Great Mother)를 상징한다. 아니마가 병들었는데도 나는 그 태모를 건성으로 대한다. 이것은 목회탈진의 꿈이다. 영혼이 지치고 늙었지만 Dream Ego 는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영혼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의 무관심에 비명을 지른다. 좀 더 다정하고 수용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자신의 예쁜 딸을 데리고 와서 말한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딸의 순결을 당신에게 드리고자합니다. 내 딸을 받아 주십시오."(12 회기)*

>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 몸을 좀 주물러 달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요청에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조심스럽지않게 여기저기 주물러 드린다. 외할머니 겨드랑이에 피부가 검게 부식된 쇳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내가 그것을 잘못 눌러 그만 부서져 버린다. 외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아프다고 말씀하신다.(140 회기)*

> *어머니께서 나를 따라 가파른 층계를 올라 오신다. 지금의 어머니보다 늙고 약해진 모습이다. 계단이 불규칙적으로 경사가 심해 나와 아내가 어머니의 손과 어깨를 잡고 겨우 층계를 올라온다.(38 회기)*

부정의 길에서 경험하는 두번 째 범주는 지하세계로의 하강이다. 이곳에서는 아니마의 죽음, 아니마의 자살, 죽음과 부활의 입문의식, 동물로 나타난 아니마 등 4 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아니마의 죽음

실제 삶 속에서 죽음을 예견하는 꿈은 Dream Ego 가 긴 여행을 떠나거나 화려한 결혼축제로 나타나곤 한다. 융은 화려한 축제의 소리를 꿈 속에서 듣고 어머니의 죽음을 예견했다. 그러므로 꿈 속에 등장하는 여자의 죽음은 아니마

문제가 죽음을 통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내준다. O 의 죽음의 소식과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꿈 역시 어머니 콤플렉스가 극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분었다. 이 꿈은 어린 시절 나를 사로잡았던 이 모성 원형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고모는 태모(Great Mother)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녀는 외롭게 산 속에 혼자 살고 있으며 죽은 딸의 유골을 방안에 보관하고 있다. 어린 딸이 Dream Ego 와 함께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장면과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 꿈은 여성성의 희망을 상실할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 개성화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깜짝 놀라새벽에깨어났다.)(94 회기)

고모가 산속 오래된 기와집에 혼자 살고 계신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 내 손에 들고왔던 유골을 아궁이앞에 땅을파고 거기 묻는다. 한 사람이 벽돌을 가리키면서 그 안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때 고모는 저 안쪽 방 안에 오래 전에 죽은 딸의 유골이 있다고 말한다.(119 회기)

막내 딸이 호수에 빠졌다고말한다. 내가 그곳에 도착 했을 때 사람들은 막내 딸을 찾으려면 한 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호수로 뛰어 들어가 물에 빠진 아이를 찾는다. 이때 누군가가 아이를 찾아냈고 호숫가로 끌어 올린다. 나는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곧 아이는 다시 살아나 숨을 내쉰다.(120 회기)

나는 운전기사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중이다. O 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공항에 도착하여 가방을 끌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게이트로 간다. 막내 딸도 나와 함께 가방을 끌며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 간다.(52 회기)

b. 아니마의 자살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부정한 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마 문제가 극복되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L 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니마상이다. 그런데 Dream Ego 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다. 이는 L 의 순진하고 미숙하고 천진난만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미숙한 콤플렉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천진난만한 측면은 이제 극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개성화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L 이 자살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이때 아내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준다.(104 회기)

L 과 그의 아들이 자살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큰소동이벌어졌다. 나는 더 이상 살아서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을느낀다. 내가 결국 그의 삶을 이렇게 끝내게 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함께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내아들이 문 앞에 서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끓어오르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제대로 살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운다.(83 회기)

c. 통과의례(Initation)

영혼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고통의 심연을 통과해야 한다. 옛 자아가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하고 결국 죽어 완전히 갈기갈기 해체된 후 지하 세계로까지 하강해야 하고 이 때 그는 다시 태어나 비로소 영웅으로 귀환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였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였다. 상처를 맛보지 않은 사람,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지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영혼의 의사가 될 수 없다.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며 생존해왔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을 참고 견디면서 빚어진 것이다. 이것이 개성화를 위한 통과의례이다.

나는 병원에 와 있다. 급하게 환자를 실은 침대가 수술실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거기 한 여성이 누워 있고 그 위에 한 아이도 함께 있다. 그녀의 몸의 빛깔은 회색이다. 이제 나의 수술 차례가 된 것 같다. 내 왼발이 위로부터 아래로 길게 찢겨져 있고 가죽이 너덜거린다. 수술이 시작 되었고 의사가 허벅지와 정강이에 살이 거의 제거되고 뼈만 남은 나의 다리를 보여 준다.(83 회기)

나는방파제를걷고있다. 허공에 교수대가 걸려있고 거기 다섯 명이 목을 매고 죽어 있다. 그 중에 한 명인 소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가 유대인인 게 분명하다.(135 회기)

d. 동물로 나타난 아니마

무덤은 무의식을 상징한다. 내 무의식에는 야곱의 측면과 요셉의 측면이 다 있다.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적으로 꿈 꾸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꿈에서 요셉보다 야곱의 관이 더 크다. 이는 나의 무의식은 야곱적인 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 안에 배고픈 개, 병든 개가 있다. 개는 본능적인 측면이다.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때 아니마 상일 가능성이 높다. 종교학에서 개는 더럽고 어두운 측면, 생과 사의 중개자, 충성, 이집트 신 아누비스와 같은 영혼의 인도자 등으로 상징되었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본능적인 면, 더럽고 어두운 면을 외면하고 억압했다. 그러므로 Dog Woman 은 스스로를 거룩한 천사처럼 여기는 Dream Ego 에게 본능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 내 안에 있는 아니마는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Dream Ego 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저급한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돌보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두번째 꿈에서는 아니마와 Dream Ego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기심 많은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다정다감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병적인 여인과 같다. 본성적인 측면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측면이 이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를 풀어주고 개가 달려와 뺨을 핥아주는 것을 볼 때 본능적인 측면과 많이 친해진 것 같기도 하다. 본능적인 측면을 풀어놓으면 그것이 인격화되는데 곧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를 보여주는 꿈이다.

세번째 꿈에서는 새끼를 밴 개와 죽은 딸이 서로 연결되어 등장한다. Dream Ego 는 마치 개를 딸처럼 여기고 돌려주지 않기를 바란다.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감정기능이 죽어버렸다. 상실된 기능을 대신할 뭔가가 잉태되어야 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 일상적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제 태중에 새롭게 잉태된 몸과 감정과 기분 등 여성적인 기능들을 잘 키워 나가라는 의미이다.

여러 사람들이 땅 속에 뭔가를 찾고 있다. 마치 탄광처럼 큰 갱도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삽과 곡괭이로 흙을 밖으로 퍼낸다. 마침내 관을 하나 찾아낸다. 사람들은 그것을 야곱의 관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른 관도 찾아야 되는데 지도도 없고 어디를 파야 할지 모르겠다. 이 때 누군가 작은 관 하나를 찾아냈다. 그 관은 어린아이를 담아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요셉의 관이라고

말한다. 먹던 과자부스러기를 창 밖으로 던지자 개들이 달려와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아우성을 친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 같고 개들이 모여 있는 곳은 더럽고 냄새 난다. 개 중에 한 마리는 장애가 있다. 뒷다리가 마치 자룻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런데 그 개가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나에게 간청한다. 자신을 개의신분으로라도 회복시켜달라고.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어 외면하고 돌아선다. 마음이아프다.(67 회기)

길을 가다 보니 개가 선 채로 입이 꽁꽁 묶인 채 가마니에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나는 개의 주둥이의 끈을 풀어준다. 개가 나에게 달려들어 혀로 나의 뺨을 핥는다. 그 순간 개가 여자로 변한다. 나와 개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한 여자가 우리를 시기한다. 그녀는 개의 눈을 가렸던 붕대에 물약을 발라 놓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상상 속에서조차 눈이 매워 눈물이 날 지경이다.(109 회기)

나는 2 층 전세방 같은 곳에 사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집을 잃은 개 한 마리가 들어온다. 새끼를 밴 개였다. 갑자기 나는 울면서 죽은 딸을 추억한다. 나는 이 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기를 바란다. 마치 개가 아기인 것처럼 여기면서.(4 회기)

3. 창조의 길

자기 실현의 여정을 시작한 영웅은 파괴적인 모성원형과 부정적인 아니마의 격렬한 거절과 공격 앞에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목숨을 부지한 채 광야로 쫓겨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밤을 경험한다. 창조의 길에서 경험하는 첫번 째 범주는 긍정적 아니마와의 만남이다. 이곳에서는 어리고 젊은 아니마, 이브로서의

아니마, 마리아로서의 아니마, 사피엔치아로서의 아니마 등 4 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어리고 젊은 아니마

첫번 째 꿈에서 여자 아이는 어린 아니마와 희망을 상징한다. 남자는 로고스 측면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에로스 측면이다. 여섯 살 정도 된 아이라면 아마도 6 년 전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여성적 원리의 탄생을 가져온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이 꿈을 꿀 당시에도 갓난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것을 볼 때 때 무의식 세계에서 감정적인 측면과의 새로운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두번 째 꿈에서 자아는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긴 것 같다. 막내 딸은 나의 Anima Soul 이며 그를 해치려는 어떤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싸우는 영웅 또한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는 괴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싸우고 있다.

세번 째 꿈에서도 Dream Ego 가 아니마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막내 딸은 나의 생명, 분신, 삶의 의미로 연상된다. 어린 아니마는 나의 영혼의 여성적인 측면이다. 꿈에서 막내 딸이 한 선교단체로 가는 어둠침침한 지하 통로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딸을 잃어버린다. 그 단체는 율법적, 집단적, 교조적 공동체로 연상되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많지만 건강하지 않다. 즉 율법적, 집단적, 교조적인 원리는 미래가 없고 병들었다는 의미이다. 그곳으로 가려면 담을 넘어 지하통로를 지나가야한다. 즉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녀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네번 째 꿈에서는 어린 아니마를 잃어버린 후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마음 조아렸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 감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다섯 째 꿈은 마치 영웅 스토리와도 같다. 늙은이는 낡은 의식체계, 오래된 집단의식, 도그마, 율법 등을 의미한다. 어린 여자아이는 본능적인 것, 몸, 감정, 여성성 등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어린 아니마이다. 이 꿈은 최근 낡은 의식체계에 사로잡혀 있던 감정적인 면, 본능적인 면, 여성적인 면이 어느 정도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꿈에 나오는 동물들 중 붕어와 염소 역시 본능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인성의 회귀를 상징하며 결국 돌아가야 할 자기를 의미한다.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고 큰 붕어 한마리가 있다.

> *여섯 살 먹은 여자 어린이를 입양했다. 엄마와 비슷하게 생겼다. 갓난 아기도 입양한다.(121 회기)*
>
>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긴 청년이 소파에서 자고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다.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아이를 구출한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자신의 몸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 지 모르는 것 같다. 프랑켄슈타인같은 청년은 나에게 총을 들고 쏘기 시작한다. 나도*

가슴에서 총을 꺼내 그에게 쏜다. 상대의 무기에 비해 나의 총은 형편없이 작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에게 계속 총을 쏘면서 마침내 그를 쫓아 버린다.(41 회기)

지하 통로가 보인다. 가운데 높은 벽이 있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 그런데 막내 딸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반대 편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막내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단체로 갔고 지하 통로를 지나자 그곳에 어둠침침한 방들이 보인다. 그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불행해 보인다.(36 회기)

북극해처럼 얼음이 언 바다에서 막내 딸이 빠져 실종되었다. 나는 얼음 구멍으로 뛰어 들어가 딸을 찾고자 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때 바다로 향하는 구조물의 하수구에서 흐릿하지만 붉은 뭔가가 흘러 나온다. 나는 그 건물 속으로 수영해 들어간다. 그런데 막내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밖으로 걸어 나온다.(122 회기)

늙은이가 어떤 여자 어린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사는 집을 지나다가 그 여자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집 옆 굴뚝 구멍에 팔뚝만한 폭탄을 넣어 터뜨린 후 그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탈출하였다. 이때 그 아이가 키우는 염소 한 마리가 따라 왔다. 동네를 빠져나와 사람들이 몰려있는 정거장에서 겨우 2 층 버스를 탔다. 도착한 곳은 옛날 살던 고향마을 과수원이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바닥이 60 도 가량 지울어져 있고 저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때 남동생이 50cm 정도 되는 큰 붕어를 비닐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면서 '형이 가져온 것인데 하루 종일 비닐에 담아둬서 죽었을지 모른다'고 말한다.(16 회기)

b. 하와로서의 아니마

꿈은 윤리도 도덕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아니마의 발달단계 중에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브는 생산을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여성 또는 어머니로 표현된다. 젖가슴은 성적인 상징이 아니라 여성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내, 수용, 연결, 관계, 양육 등을 나타낸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그 안에서 놀고 먹고 자면서 자라간다. 첫번째 꿈에서 사촌 누나는 가슴처럼 나를 푸근하게 돌봐주는 아니마상이다.

두번째에서 네번째 꿈에서는 매우 과감하고 저돌적이고 육감적인 아니마가 등장한다.대개 이와 같은 꿈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좇아 살거나 지나치게 경건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들에게 흔히 보상작용으로 나타난다. 꿈에 등장하는 여자는 에로스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감정과 본성을 돌보지 않을 때 영혼이 곤고하고 메말라 있는 무의식 상황에 대한 여성적 원리의 위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Anima Inspiration 을 통해서 회춘을 경험하게 된다. 파우스트가 그렌트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삶의 절정기는 끝났다고 여길 때 중년기에 남성들은 이런 유혹을 받는다. 융도 이슬람 연금술에 관한 강연에서 늙고 맥없는 할아버지가 젊은 여성을 만난 뒤 회춘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마지막 꿈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H 목사는 자신의 페르조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평범한 삶을 원한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젊은 아니마 즉 본성적인 측면이다.

길목에서 아내가 몇몇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커다란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내 말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35 회기)

한강 시민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옷을 걸치지 않은 한 서양 여성이 나에게 다가온다. 나는 그녀의 등에 업혀 그녀와 애무를 한다.(20 회기)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성 하나가 내게 다가와 유혹한다. 나는 너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 때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일어나 앉는모습이 보인다. 나는 그 여성이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그 여성은 계속 나에게 다가와 옷을 벗기려고 한다.(131 회기)

나는 베트남에 와 있다. 키가 큰 두 명의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껴안으면서 키를 재어보자고 한다. 하이힐을 신어서인지 나보다 한 뼘은 커 보인다. 나는 졸지에 이 동네 한류 스타가 되었다.(54 회기)

H 목사가 젊은 여자를 가슴에 품고 누워 자신은 평범한 샐러리맨이라고 말한다. K 장로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8 회기)

c.헬레네로서의 아니마

헬레네는 아니마의 발달단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여성이다. 이 단계는 성적인 에로스가 아직 지배적이지만 미적이고 낭만적인 수준으로 여성이 어느 정도 개성적인 가치를 지닌 경우이다. 첫번 째 꿈에서 헬레네와 같은 아니마가 등장하지만 Dream Ego 는 그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두번 째 꿈에서도 친절한 아니마가 등장한다. 그녀는 Dream Ego 에게 못되게 굴거나 까칠하게 말하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부드럽게 요청한다.

세번 째 꿈에서는 배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니마가 나온다. 흑인은 대지, 본성, 힘, 몸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없이 자기 본래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 꿈은 육체성, 여성성, 감정, 본능, 에로스 측면을 계발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 남성성, 지식, 율법, 로고스 측면만을 좇아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상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꿈은 바다 위 배를 타고 가면서 노래하는 아니마를 배치하여 나를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곳을 떠나 반대편으로 인도한다.

네번 째 꿈에는 내 안에 버려져 있는 본성을 돌봐주는 아니마가 등장한다. K 는 착하고 순수하고 세상 물정 잘 몰라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여성으로 연상된다. 그녀는 나에게 로고스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책을 선물로 준다. 그녀는 지성과 여성성을 통합한 헬레네 아니마이다.

> *나는 룸살롱에 들어간다. 하지만 밖에 서 있던 사람이 나에게 삼진아웃 되었으니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앞으로 영원히 이곳을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황당한 느낌을 받는다. 이 때 누군가가 3 시간 동안 마담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5 층으로 올라가라고 말한다. 마담은 착하고 매너있고 예쁘다. 나는 층계를 통해 위로 올라가지만 방을 찾을 수 없다.(66 회기)

나는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한다. 그런데 벤츠 한 대가 내 앞길로 밀고 들어 오더니 내 차를 긁고 멈추었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나온다. 손톱을 빨간 색으로 칠한 이 여자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다 변상해 줄테니까 절대 보험사에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45 회기)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경매하고 있다. 팻말을 보니 학식 있는 자는 1kg 당 5 달러, 건강한 흑인은 1kg 에 50 달러라고 써 있다. 생각해 보니 나는 노예로서 별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20 대 후반의 여성이 내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얼굴은 사랑스럽고 목소리는 감미롭다.(9 회기)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K 가 다가와 나를 안아 준다. 페르세포네같은 그녀의 목소리에 비로소 나는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그녀는 원래 Y 교수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인데 나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낡은 종이로 포장된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9 회기)

d. 사피엔치아로서의 아니마

사피엔치아는 아니마의 발달단계의 네번 째에 해당하는 여성이다. 세번 째 단계인 마리아로서의 아니마에서 에로스는 가장 높은 가치, 종교적 헌신으로 드높여지고 에로스는 영성화된다. 그러나 네번 째 단계에서 사피엔치아는 마리아의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것을 뛰어넘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의 지고지순성

안에 약간의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피엔치아 단계일 것이다. 청상과부는 아이 없이 남편을 잃었으므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처입은 아니마이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비천한 아니마, 로고스로서의 힘을 상징하는 그림자상, 다시 노여현자(Wise Woman)를 통과해야 만날 수 있다. 그녀는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녀는 그곳에서 창조적인 작업(Creative Work)을 하고 있다. 내면작업(Inner Work)은 자연친화적이다. 그녀와 신비스러운 만남을 원하는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5~60 대 남자가 애를 태울 만큼 매력적이다. 그것이 그녀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층에 숨어 있다. 그녀는 지고지순하지만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피엔치아로서의 아니마이다. 꿈은 색을 밝히는 천박하고 늙은 한 남성을 배치시킴으로써 내 안에 존재하는 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청상 과부가 조선 최고의 화가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부탁하려고 줄을 서 있다. 마루에는 한복을 입은 여종이 앉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늙은 노파가 앉아 있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자 무사가 앉아 있고 마지막으로 젊은 과부가 방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녀가 그림 하나를 그려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화처럼 보이고 초록색으로 산수화를 그렸다. 이때 캐딜락을 타고 약 5~60 대의 능글거리는 남자가 기생 하나를 태우고 그 집에 도착한다. 그는 기생에게 빨리 저 청상과부를 기방으로 들여서 자신과 한 번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조른다.(130 회기)*

창조의 길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범주는 자아와 자기의 연결이다. 이곳에서는 영혼의 인도자(Soul Guide)로서의 아니마 1 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영혼의 안내자

개성화의 과정은 여행과 같다. 그 여정은 쓸쓸하고 차갑고 어두운 밤일 때도 있다. 그 과정에서 괴물을 대면하기도 한다. 괴물을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신공양을 한다. 많은 설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 야수에게 미녀가 필요하듯이, 킹콩에게 여자가 필요하듯이, 괴물에게는 순결한 처녀가 필요하다. 야수도, 킹콩도, 괴물도 모두 다 현대 남성을 상징한다. 지금 젊고 순종적이고 생기발랄하고 착한 여자가 필요하다. 미녀 앞에 야수는 순한 양으로 변한다. 이것은 실제여성(Real Woma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성상(Eternal Woman)을 의미한다. 이런 여자가 실제 나타나면 남자들은 외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이다. 구원의 길은 내 안에 존재하는 페르세포네와 같은 여성성을 통합하는데 있다.

두번 째 꿈에서 어머니는 Mother Imago 이다. 어머니는 책임감이 강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적이며 자기 삶이 없었다. 꿈은 그런 어머니의 심장이 멈췄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측면은 지금 나의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와 같은

면이 극복되었음을 말해준다. 막내 딸은 전형적인 아니마상으로서 Soul Guide 즉 여정의 동반자로 등장한다. 그 아이는 명랑하고 사랑스럽고 감성이 풍부하고 본능적인 나의 영혼이다. 영혼은 나를 숲길을 따라 고향으로 인도한다. 그를 따라 가면 건강한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있는 고향집이 있다. 숲길과 고향집은 무의식과 자기(Self)를 상징한다. 두번 째 꿈에서도 죽음과 고향집이 등장한다. 여기서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어떤 측면이 극복 되었음을 말해준다. 40 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 역시 내 안에 아니마이다. 그녀는 불편한 장례식장에서 잠시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Dream Ego 에게 자리를 안내해 준다.

세번 째 꿈에는 시골길을 동행하는 젊은 여자가 등장한다. 움막에는 호랑이가 잠들어 있다. 호랑이는 무의식 안에 있는 힘과 야성, 자연의 영(Nature Spirit), 도사의 메신저, 용의 대극, 내적인 빛, 조절되지 않는 충동, 조급함, 자연의 빛(Lume Naturae) 등을 상징한다. Dream Ego 는 이런 측면들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마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을 시킨다. 스스로 이런 측면을 멀리하고 있지만 꿈은 본성과 야성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Peter Birhouser 는 호랑이를 "Light from the Darkness"라고 했다. 호랑이는 무의식적 정신에서 사물을

본다. 이 꿈은 내면의 호랑이 측면을 깨우라는 의미이다. 영혼의 안내자는 결국 Dream Ego 를 산 정상 즉 하늘과 맞닿아 있는 세계로 이끌어 간다.

네번 째 꿈은 30 대 여성 한 명이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ral Education)하는 장소로 Dream Ego 를 인도하고 다섯번 째 꿈 역시 20 대 초반의 젊은 처녀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ral Education)은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병원에서 살아 있는 인간문헌(Human Document)을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아니마는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의 장소로 Dream Ego 를 인도하고 있다. 심산유곡은 상징적으로 Rain Maker, Wiseman 또는 자연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현대사회 한 복판에 살고 있는 Dream Ego 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아니마는 이런 그를 자연의 세계 곧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한다.

마지막 꿈에 등장하는 값비싼 모피코트를 파는 여성과 경건한 삶을 사는 L 목사는 대극이다. 영성수련원을 찾고 있지만 화려한 여성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상징이다. 그녀는 금고에서 돈을 넣고 뺀다. 돈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만 지금 아니마는 먼저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적인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입장료도 없고 막상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가짜일 뿐이다. 이것이 Dream Ego 의 현 주소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계라 할지라도 정신적인 에너지를 지불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만을 좇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현실과 조화를 이루면서 대극의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깜깜한 밤에 혼자 여행을 한다. 그런데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나에게 페르세포네와 같은 젊고 생기있는 여성을 보내 주면 이 골목을 통과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만약 먼저 지나가게 해 주면 돌아 오는 길에 그런 여성을 데려오겠다고 하고 겨우 그 계곡을 지나쳤다.(15 회기)*

> *어머니의 심장이 잠시 멈추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 막내 딸은 아빠의 근심어린 얼굴을 보고 배려깊은 태도로 나를 숲길을 따라 고향집으로 데리고 간다. 저 멀리 옛날 살던 집이 보이고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아버지는 나무장작을 쌓고 계신다.(101 회기)*

> *캄캄한 밤에 장례식 조문을 하기 위해서 시골의 한 집을 방문한다. 대문을 들어서자 허름한 한옥이 보이고 방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쪼그려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옆을 보자 40 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맞이한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S 의 어머니임을 알아 차린다. 나는 혹시 이곳이 S 의 고향집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옆에 서 있는 내 아이들이 고 3 과 고 1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녀에게 소개시켜준다. 그러나그녀는고 3 인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곳에서 잠자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방의 한 구석에서 잠시 쉬었다가 내일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한다. 나는 누가 죽었는 지 모르겠다.(52 회기)*

캄캄한 밤에 시골 길을 올라간다. 젊은 여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오른편에 작은 움막이 보이는데 그 안에 지금 호랑이가 잠들어 있다고 한다. 여자는 호랑이가 무섭지않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밤에 인기척을 들으면 호랑이가 놀라 달려들지 않을까 두렵다. 산 정상에 올라간다.(139 회기)

시카고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아름다운 그 도시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면서 이 곳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매력적인 30 대 여성 한 명이 나를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 곳에는 임상목회교육(CPE)이 진행되고있다.(42 회기)

버스를타고내리니깊은산속이다. 하차한 사람들은 어디론가 총총 걸음으로 사라진다. 나는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바심에 좁고 험한 비탈길을 내려가는 20 대 초반의 젊은 처녀를 좇아 간다. 산길을 지나고 바위를 오르고 위험한 웅덩이를 지나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한다. 넓은 바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방처럼 꾸며 놓았고 그 옆은 마치 주방과 같다.(26 회기)

한 벌에 500 만원씩 하는 모피 코트를 파는 가게의 주인은 50 후반의 여성으로서 매우 세련된 옷을 입고 있다. 안전을 위해 돈을 특수하게 장치된 금고에 넣고 뺀다. 다른 일행은 이미 수련회 장소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티켓을 받으려고 했지만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억지를 부려 겨우 티켓을 받았지만 생각해보니 입장료를 내지 않은 것 같다. 수련회 장소는 정말 대단하다. 마치 열대 우림속에 앙코르왓트같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강물에는 거대한 뱀도 있다. 물론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만든 인조물이다. 수련회 장소로 임대한 곳에 도착하여 L 목사 일행을 만났다.(51 회기)

4. 변모의 길

자기 실현의 여정을 시작한 영웅은 파괴적인 모성원형과 부정적인 아니마의 격렬한 거절과 공격 앞에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목숨을 부지한 채 광야로 쫓겨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밤을 경험한다. 그러나 Dream Ego 를 조건 없이 수용해 주는 아니마를 만나면서 새로운 창조의 길로 접어든다. 그곳에는 어리고 젊은 아니마, 하와로서의 아니마, 헬레네로서의 아니마를 만나 회복을 경험하고 영혼의 안내자를 통하여 새로운 변모의 길을 향해 여정을 떠난다. 변모의 길에서 첫번 째 범주는 수동적 팽창이다. 이곳에서는 생명력, 창조성, 생산성, 가능성 등 네 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생산성

첫번 째 꿈은 여인이 아기를 낳는 꿈이다. 여인은 신적인 창조력을 상징한다. 탯줄은 이 창조력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그런데 지금 Dream Ego 에게 해산을 돕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탯줄 곧 매개체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탯줄은 옥수수껍질로 덮여 있고 굵은 동아줄처럼 생겼다. 융의 전집 "영웅과 모성원형"에서 페루의 옥수수 신 몬다민을 소개하고 있다. 페루 인디언들은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가 늙은 여자의 피에서 생겨났다고 믿었다. 먹을 수 있는 신은

기독교의 성찬과 비슷한 메타포이다. 두번 째 꿈 역시 여인이 인공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 꿈이다. 여인에게 마취를 하지 않고 옆구리를 갈라 아기를 꺼내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허리에 창을 찌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난다. 여인은 생명의 탄생으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아니마를 통하여 뭔가 생산적인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나에게 탯줄을 관리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탯줄을 잡아보니 옥수수 껍질 같은 것으로 덮인 굵은 동아줄처럼 생겼다. 껍질로 잘 덮어 끌어 당기는데 잘못 잡아 당기면 바늘로 꿰맨 부위가 터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98 회기)*

> *내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있다. 그런데 여인에게 마취를 하지 않고 옆구리를 갈라 아기를 꺼내는데 세 쌍둥이가 나온다. 여인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108 회기)*

b. 생명의 가능성

생리는 생명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6 살 된 막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나의 삶은 고통과 패배의 시기를 지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요, 내 안의 가능성이 싹트는 때였다. 이제 막 40 대에 접어든 그 시간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기도 했다. 6 살된 막내 딸은

영어를 잘 하고 뮤지컬과 연기가 뛰어나며 보석같고 귀엽고 부끄럼 없이 해맑은 아기로 연상된다. 이 아이가 태어는 것은 아니마로서 생산적인 어떤 존재(Productive Being)가 내 안에 태어난 것을 말하며 그가 6 년 동안 자라서 지금 내 안에 어린 아니마가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꿈은 이 아이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아이의 측면을 통합하면서 이제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지만 생명의 가능성이 시작되었고 내 삶은 생산적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후를 보여준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암중모색(Night Sea Journey)이지만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될 때 그 길은 성숙을 향한 개성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 *큰 아들이 아내에게 와서 막내 동생이 생리를 한다고 말한다. 7 살된 아이가 무슨 생리냐며 아내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다.(44 회기)*

c. 생명력

섹스는 단순히 성적인 환상보다도 생산을 의미하며 발기는 생명력(Vitality)을 상징한다. 꿈에서 발기가 된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으므로 재생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동남아시아, 여성, 어머니, 소녀 등은 본성적인 측면 즉 몸과 감정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서양의 영성은 오랫 동안 로고스적인 측면만을 발달시키면서 남성화되었다. Dream Ego 가 어린 소녀 즉 Anima Soul 을 돌보고 있다는 것은

에로스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이것은 이 꿈을 꿀 당시 고요하고 한적하고 단순한 자연 속에서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쉼을 누리던 무의식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 *나는 동남 아시아의 한 넓은 저택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때 한 여성이 나의 몸을 만지면서 내 성기가 발기된다.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 옆방의 문이 반 쯤 열려 있고 그곳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다.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보니 한 소녀가 옆으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다. 추워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이불을 갖고 와 그에게 덮어 주었다.(96 회기)*

변모의 길에서 만나는 두번 째 범주는 본래적 전인성의 회복이다.여기에서는 태모원형, 양성성, 대극의 합일, 개성화, 자기(Self), 마지막 꿈 등 6 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a. 태모(太母) 원형

첫번 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태모(Great Mother)를 상징한다. 매화는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겨울의 추위를 무릎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다. 매화는 매실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다시 나무가 되는데 꿈에서는 깨알처럼 작은 매화씨가 손바닥 가득 담긴다는 것으로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다. 원래 매실은 술에 담가 먹는데 그 효능은 치유적이다. 그러므로 이 꿈은 엄청난 치유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번 째 꿈에서 어머니와 딸은 실체(Reality)가 아니라 모성원형을 상징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정이 고스란히 꿈에 담겨있다. 그 과정 내내 여성성이 쉼을 주고 양육하고 돌본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는 대개 여성적인 측면을 상실하곤 한다.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개신교에서는 성령이 여성적인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독교 안에서 성령조차도 남성화되면서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공격적이 되고 자연을 파괴한다. 인생에서 진정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성을 통합하는데 달려 있다. 여성적 원리를 통합할 때 돌보고 양육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 *30 센치미터 정도 되는 오래된 둥치에 짧은 줄기가 꼬불꼬불 달려있고 거기에 매화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 어머니가 분재처럼 매화나무를 가꾸고있다. 나는 매화씨를 따기 위해 다가가 깨알보다 작은 씨들이 모여있는 꼬투리를 딴다. 그것을 몇 개 손으로 비비자 두 손 가득히 검정 모래알처럼 매화씨가 터져나와 내 손에 가득 담긴다.(138 회기)*
>
> *어머니 품에 안겨 잠을 잔다. 나는 점점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늙어간다. 결국 딸이 갓난아이가 된 늙은 나를 품에 안고 있다.(49 회기)*

b. 양성성

꿈에 등장하는 운전수는 양성적이다. 양성은 전체성의 상징이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근무시간이 길지만 두 명의 조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있어 보인다. J 라는 동네는 나의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이 있다. 운전수는 나를 지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 *60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바짝 마른 여성이 운전하고 있다. 그녀의 모습은 남성적인 기품과 담대함이 엿보인다. J 마을 정신병원 쪽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운전수에게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옆에 두 명의 조수가 앉아 있다. 아마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135 회기)*

c. 대극의 합일

W 는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믿음이 좋은 남자청년이다. 이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그림자이다. 그런데 꿈은 이런 측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생활력이 강하고 대인관계를 잘 맺고 정치력도 있고 머리도 똑똑한 외숙모와 같은 측면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고모의 경우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긍정적인 아니마이다. 꿈이 극적인 두 사람의 결혼 폭탄선언을 배치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만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내 안에 감추어진 이런 면들이 서로 대극의 합일을 하고 결합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지난 10 년 동안 함께 살고 있던 W 가 초등학교 3~4 학년의 모습으로 밝게 웃고 있다. 정말 귀엽고 착한 얼굴이다. 그런데 그가 고모와 결혼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다. S 와 T 는 W 와 사촌간이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88 회기)*

d. 개성화

첫번 째 꿈에서는 여성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성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꿈(Big Dream)이다. Dream Ego 는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다. 그가 걷고 있는 골목길은 개성화의 길이다. 주변 불빛은 희미하고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침침하다. Dream Ego 는 좀 더 밝은 빛을 소망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있지 못했음에 분명하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Vox Dei)이 들린다. 라틴어는 중세 이래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어로 여겨졌다. 그 음성은 개성화의 길이 암중모색이요 오리무중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인생 자체가 원래 불확실하다.

만약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밝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길일 것이다. 개성화는 평화가 아니라 고통과 좌절과 번민의 과정이다. 삶의 어두움과 모호함의 영역을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실현을 완성할 수 있다. 인생의 전반기 주제는 자아실현이다. 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 주제는 자기실현이다.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자아실현은 세상에서의 상승과 소유와 외향성의 추구라고 한다면 자기 실현은 하강과 존재와 내향성을 좇으면서 결국 삶의 어두움과 실수와 패배와 불확실까지도 다 포함해야 완성된다. 헨리 나우웬은 내 안에 어두운 구석을 발견해야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개성화에 대해서 자아는 그동안 밝고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잡기 위해서 이 여정에서조차도 경직되고 완벽하고 바쁜 삶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보였다. 사람들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손가락질 했다. 그 주변에 똑똑하고 밝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마리아여인, 간음한 여인, 창녀, 가난한 어부, 출교당한 세리 등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 주셨다. 이것이 완성된 개성화의

모습이다. 개성화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신화학자였던 조셉 캠벨은 "왜 목사들은 웅변을 통해서만 감동을 주려 하는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넌지시 보여주면 되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길에최선 다해 걸어가는 것이 곧 자기실현을 위한 개성화의 길이다.

두번 째 꿈은 개성화와 관련한 연금술적인 꿈이다. Dream Ego 는 연금술을 통해 Self 를 획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인간이 찾는 것은 결국 영생이다. 신약은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의 영약인 불사약이요 나를 치유하는 도구(Healing Method)이다. 거인은 원형상으로서 굉장한 힘을 가진 부성적 원리 즉 로고스, 이성, 지식, 힘 등을 상징한다. 검은 돼지는 거인과 대극이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돼지는 더러운 인간의 욕망, 정욕, 탐욕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분석심리학에서 돼지는 본능 즉 육체성(Physicality)를 상징한다. 돼지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교활한(Highly Intelligent) 동물이다. 야생에 사는 돼지는 다음 날 먹을 음식을 저장하지 않는다. 진흙에서도 자유롭지만 사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새끼를 많이 낳는다.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 옆에서는 항상 돼지가 있었다. 이집트 여신 이시스는 늘 돼지를 타고 다녔다. 검은 색은 대지를 상징한다. 도스토엡스키는 검은 대지(Dark

Soil)을 사랑하라고 했다. 그런데 꿈에서 돼지가 아프거나 병든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측면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영적인 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자신의 몸과 감정을 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성화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대지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균형이다. 성공, 지식, 상승, 힘 등 로고스적 원리 즉 거인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약을 얻을 수 없다. 프란츠 카프카는 어린 시절 부정적인 부성 경험을 함으로써 일생 부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쓰기에 몰두하였다. 아마도 이 꿈을 꿀 당시 나는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사람의 말에 매임, 비굴한 현실에의 순응, 더 높은 직책을 추구함, 그것을 얻지 못함에 대한 열등감 등 부성적 원리를 따라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개성화란 이런 것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나 자신과 애정어린 관계(Loving Attitude)를 맺는 것,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게으름, 휴식, 즐김, 오락, 섭생, 성 등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 *기분이 나른하고 편안하다. 이곳이 어딘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비탈진 골목길을 여러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있지만 안개가 약간 낀 것 같고 불빛은 희미하다. 느낌이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침침하다. 나는 좀 더 밝게 조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O Est Individuation.' 이 말이 라틴어인가? 나는 순간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해석했다. '이것이 개성화이다.' 나는 왜 이런 분위기와 개성화가 연관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69 회기)

신약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 다닌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너무 고단하여 잔디밭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 때 거인이 나타나 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죽은 줄 알고 번쩍 들고 언덕을 내려 간다. 그의 한 쪽 어깨에는 검은 돼지가 죽어 뻣뻣하게 굳어져 있다. 나는 온 몸으로 버둥거리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거인은 내가 여전히 죽은 줄 아는 것 같다. 결국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났고 마침내 내가 찾고 있던 신약을 찾아 낸다. 나의 미래는 활짝 열렸다.(93 회기)

e. 자기(Self)

첫번 째 꿈에서 요정은 동화의 세계에 존재하며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고 다른 세계로부터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이교적 메신저이다. 대개 분석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꿈에 이와 같은 환상적이고 상상력이 활성화된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꽃 속에 꽃이 있고 만물이 거기에서 태어난다"는 음성은 무의식 깊은 곳에 위치한 하나님의 목소리(Vox Dei)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십자가와 태극은 대극의 합일을, 연꽃에 앉아 있는 부처는 개성화를, 그리고 꽃은 자기(Self)를 상징한다. 꽃 안은 내적 중심(Inner Center)이며 아빌라 테레사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8 궁방이다. 꽃이 핀다는 것은 자기 실현을 의미한다. 자기를 실현하면 그곳으로부터 만물이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인

L 목사 역시 자기상으로 연상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흠모하거나 닮아가려고 하거나 이상화하기보다는 그림자와 아니마를 통합하면서 진실로 자기 안에 감추어진 본래적 전인성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자기 실현이다.

두번 째 꿈에서 남자 아이, 교황, 여자 아이 모두 다 자기(Self)상이다. 만다라 모양의 층계는 전체성(Totality)을 의미한다. 융은 '어린이 원형 심리학에 대해서'라는 글에서 어린이는 중재자요 구세주요 전체성의 실현이라고 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미래를 상징한다. 이 아이가 어울리지 않게 마치 선사의 설법과 같은 심오한 말을 하고 있다. Dream Ego 는 그 옆에서 수중을 들고 있다. 그는 분명 영적인 존재(Spiritual Being)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교황이 된다. 그림 동화집을 보면 각종 짐승의 언어를 배운 어린 아이가 마침내 교황이 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교황은 우주의 중심이며 자기의 상징이다. 여자 어린이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그가 만다라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그가 아니마상이 아니라 자기의 상징임을 보여준다.

> *L 목사는 이번 수련회 때 준비해야 하는 연극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역할을 배정한다. 나에게는 Edelle 이라는 요정을 맡겼다. 대사는 두 세 줄 정도 된다. '꽃 속에 꽃이 있고 만물이 거기에서 태어난다.' 대충 그런 내용이다.(51 회기)*

사랑스러운 남자 아이가 서 있다. 그는 정말 심오한 설교를 하고 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존경 받는 교황이 된다. 층계를 내려오는데 한 여자아이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다. 그녀가 서 있는 층계는 마치 사각형 만다라 모양의 층계로 그는 위로 올라오고 있다.(97 회기)

e. 마지막 꿈

가장 최근의 꿈 분석은 2015 년 11 월 13 일 149 회기 분석이었다. "4"라는 숫자는 지수화풍, 동서남북, 에스겔이 본 4 가지 형상의 얼굴, 40 일 금식, 40 년 광야생활처럼 전체성을 상징한다. 이 꿈에서 매우 강한 아니마상이 등장한다. 그녀는 아직 어리거나 병들거나 죽어가는 아니마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뛰어넘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네 번씩이나 담력을 심어주며 Dreram Ego 를 훈련하고 있다. 그녀는 교회의 핵심멤버요, 상담학 교수로서 정치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인물로 연상된다. 이는 내 안에 이런 여성성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꿈이다. 그동안 살아내지 못한 삶(Unlived Life)를 의식화해서 살아내라는 의미이다.

캄캄한 밤에 혼자 계단을올라가고있다. 위층에 올라갔을 때 장로인 S 와 목사인 L 부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S 는 평소와는 달리 유약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L 은 네 번씩이나 나에게 겁을 주려고 무서운 표정으로 으르렁거린다. 그녀는 내가 과거 S 교회에서 만났던 의사출신의 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49 회기)

ChapterV

결론(Conclusion)

A. 연구결과요약

본 연구는 남성 목회자가 꿈 분석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된 여성성의 주된 내용과 특징이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적인 원리가 어떻게 개성화의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 년 동안 융 분석가로부터 연구자가 직접 받은 150 여편의 분석자료를 원자료로 삼아 질적 연구방법론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과 개성화와 관련된 총 156 개의 의미를 추출하였고 이것을 다시 27 개의 의미단위와 8 개의 범주 그리고 4 개의 주제로 분류한 뒤 그 중에 27 개의 의미단위들에 대한 구조 진술을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결론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연구자가 기존에 가진 이론이나 선입견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선택하거나 연구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료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선 경험을 판단중지하고 꿈분석을 받은 후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분석 자료 그 자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가운데 나타난 여성성에 대한 모든 의미단위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요 범주들을 중심으로 꿈 분석 경험을 하나의 꿈으로 간주한 뒤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과정과 원리를 정리해 보았다.

1. 질적연구의 결과

이번 연구는 상실의 시기를 지나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한 감정에 자주 휩싸이는 중년기의 한 목회자인 연구자가 본래적 전인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정을 떠나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동안 성취와 경쟁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의 오후가 지나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오후에 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때로 고갈되어 버린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고 때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고 때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는 여행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꿈은 중년기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 육체의 쇠약, 성적 능력의 상실과 유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 등 연구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석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결국 연구자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래적 전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즉각적으로 보상의 원리에 따라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중년기를 지나는 목회자가 분석심리학과 꿈 작업을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해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꿈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어떤 특징과 원리를 따라 자아가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구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꿈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 원형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것들은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최초의 꿈은 분석에 대한 전망과 예후를, 파괴적인 모성원형은 아니마의 위험성을, 부정적인 아니마는 자아가 로고스 원리에 사로잡여 있음을 보여준다. 상처 입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니마는 자신의 영혼의 피폐함을, 죽음에서 부활한 아니마는 콤플렉스의 극복을, 네 가지 유형의 아니마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영혼의 안내자로서의 아니마는 자아와 자기의 재연결을, 태모원형과 양성성과 대극의 합일과 개성화와 자기는 본래적 전인성의 회복을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둘째, 꿈에 등장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성 원형들은 부정적 긍정적 이미지와 무관하게 모두 다 중년기 탈진을 경험하는 목회자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 등 개성화와 자기실현을 향하고 있다. 남성 목회자가 로고스 원리에 사로잡혀 권력지향적이고 가부장적인 상태가 될 때 아니마가 상실되면서 에로스적인 측면이 고갈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년기 탈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로스적인 측면은

몸, 감정, 본성, 생명 등 여성성으로 표현되며 그것이 결핍될 때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꿈은 병들고 상처입고 죽어가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브, 헬레네, 마리아, 사피엔치아와 같은 여성들은 생명력을 제공하는 여성성으로서 곤고하고 버려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생명력이 내면에서부터 수동적으로 팽창되면서 그동안 서로 긴장관계에 있었던 대극의 합일을 이루고 마침내 본래적 전인성으로 나가도록 돕는다.

셋째, 꿈에 나타난 여성성의 주된 특징과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꿈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서 꿈의 내용도 기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첫번째 꿈과 마지막 꿈 사이에 6 년의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꿈이 이전과 달리 발전하거나 달라지지 않았고 일정한 패턴을 갖고 순환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꿈은 시간에 따라 순서를 좇아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창조의 길, 변모의 길을 따라 가지 않았다. 연구자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코딩 과정에서 여성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구절을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범주화한 다음에야 꿈이 시간의 흐름을 좇아 일정한 패턴을 따라 순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이번 연구는 꿈에 등장한 여성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꿈작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림자와

페르조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니마는 그림자보다 더 깊은 무의식 심층에 존재하는 모호성으로 인해서 분석 과정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년 동안 나타난 여성 원형들에게 있어서 순환적으로 발전하는 일정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순환적 발전은 자아가 중심점 주위의 성스러운 영역을 순환적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더 깊은 중심 즉 자기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라는 보다 큰 차원 안에 자아가 억제되어 있으며 변형을 위해 자아가 자기로 향하는 과정을 말한다. 융은 시계 방향의 움직임을 의식의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순환적 발전을 무의식의 방향을 향한 나선식 하강으로 해석하였다. 융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꿈을 한 지점을 순행하고 회전하는 모습으로 설명하였지만 노이만은 정신통합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순환적 발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향중심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융의 주장보다도 오히려 노이만의 이론이 더 현상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아니마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마가 점차 발전하거나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 순간마다 대극의 긴장 속에서 때마다 심리적 분열과 분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꿈을 통해 자가조정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연구자는

융의 순환적 발전과정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은 기계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중심을 향한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보면서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수시로 일어나는 발전구조로 설명하고 싶다.

넷째, 꿈에 나타난 여성성의 주된 특징과 내용은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인 보상의 원리 또는 대극의 합일로 설명하기보다는 3 차원적이고 현대적인 매트릭스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융은 그의 말년에 대극들은 모든 정신생활에서 근절될 수 없으며 긴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대극의 원리를 아는 것은 융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대극의 원리는 그의 과학적인 노력의 토대가 되었고 많은 가설들의 근거가 되었다. 융은 열역학 제 1 법칙에 의해서 정신 역동설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에너지가가 두 가지의 대립되는 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융은 인간 내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적용했고 오늘날 대극의 원리는 분석심리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한쌍의 대극은 그 본질상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는 균형잡힌 인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대극 사이의 타협이 와해되면 대립이 더욱 강해지면서 정신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 긴장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무의식적인 정신은 꿈에서 상징의 모습으로 대극간의 갈등을 표현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경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극들 간의 갈등은 오직 합일을 통해서 해결되며 그것이 바로 꿈의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꿈은 항상 구원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꿈에 등장하는 여성 원형들은 로고스 측면으로 치우친 남성들이 자신의 에로스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들이다.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정신과 물질을 통합하며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연합시킴으로써 온전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원리가 대극의 합일이며 그 중심에 여성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대극들은 항상 분열되어야 하고 영원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들은 무의식적인 정신 속에서 합일을 이루어간다. 예를 들면 태모원형과 파괴적인 모성상은 서로 대극이다. 이 둘 사이를 그냥 방치할 때 내면에 분열이 오고 우울하고 침체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된다. 대극의 원리는 에난트로드로미아 즉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즉 정신적 에너지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경우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융이 이야기하는 대극의 합일 또는 보상의 원리 등은 그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추상적이고 평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적이고

다면적이고 공간적인 정신역동을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2 차원적이고 평면적인 대극의 합일이라는 융의 용어 대신에 3 차원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물리학의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신세계 역동의 즉각성과 적합성과 다면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영적 성장의 기준에서 볼 때 여성적 원리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영역으로 우리와 그들로 그리고 주변의 모든 타자들로까지 확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로고스 원리에 함몰되어 있는 자신의 실상을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창조의 길에서 만나는 네 가지 부류의 여성들은 정신적 에너지를 재충전해주고 영혼의 안내자로서의 여성들은 자아에서 자기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자아를 초월하여 타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현재 연구자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위기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현재의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와 여성성을 통합함으로써 본래적 전인성을 회복한 진정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나의 삶에 대한 동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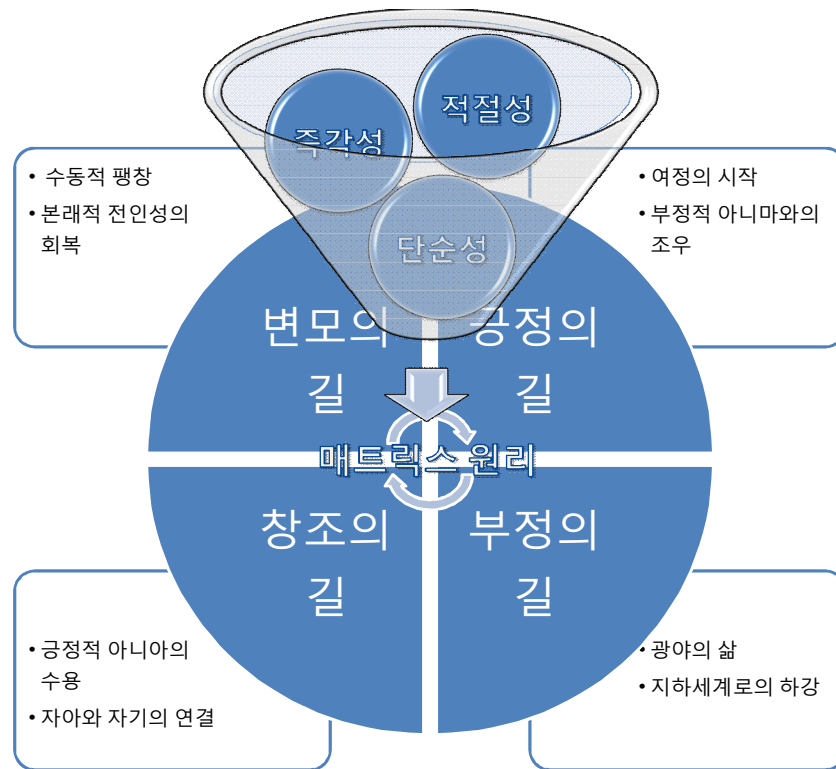
자기를 위해 지불하는 댓가, 현실에 대한 의미해석과 만족감, 진실되게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함, 그림자 투사를 중지하고 타자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고 진정 자기 자신의 개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면에서 꿈 작업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돕는 역동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꿈 속의 여성들이 결정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적 성숙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초월성과 자기통합은 꿈의 구조적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꿈에 등장한 여성 원형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남성들의 경험의 총화로서 가부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이 볼 때 남성의 상태는 잘 묘사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가 남성 목회자가 경험한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원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꿈 분석에서 경험하는 남성 원형에 대해서 그 원리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다만 이번 연구의 초점인 여성의 원리가 여성을 소외시키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여성성의 소중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분석심리학은 결코 성 결정론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남성의 여성성까지

독식하려는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성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여성신학자들은 융이 말한 여성다음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수용성과 결부시키는 것도 거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구별 자체를 차별로 보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꿈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은 자기 초월과 통합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구원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성화가 완성된 인간의 모습은 지극히 양성적이었다. 여성신학자들은 융의 분석심리학이 남자의 정신과 여자의 정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지만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은 개성화 과정 중에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일 뿐이다. 오늘날 자연과 여성성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여성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있다. 연구자는 개성화란 곧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며 자기실현의 상징은 곧 양성성이라고 본다. 즉 남자와 여자는 분명 존재하지만 각자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합할 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인간 상호 의존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양성 평등의 길이라는 것이다.

2. 발전 과정 모델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남성의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 원형의 내용과 특징이 무의식의 자가조정체계인 매트릭스 원리가 즉각성 적절성 단순성을 좇아 목회자의 내면에서 전체성과 온전성을 향하여 자기초월과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B.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 연구의 의의

영성 개발을 위한 중년 남성 목회자의 꿈 분석에 나타난 여성 원형에 관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피분석가였던 연구자의 꿈에 나타난 여성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앞으로 본인의 영성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지난 6 년 동안의 꿈을 현상 그 자체로 조망해 봄으로써 연구자의 내면 세계에 대한 분석심리학적인 통찰을 증진시키고 앞으로 삶의 동반자요 구원의 원리로서 여성성을 삶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양성적이고 온전한 전체성을 위한 삶의 이야기를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꿈 분석을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확충시키는 데 있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꿈 분석을 이론적으로 다룬 논문은 더러 있지만 지식과 실천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현상 그 자체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쓴 학위논문이나 저술이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목회상담의 영역이 전 연령대와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우리 나라 교회와 단체에서 꿈 분석을 목회상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융 분석가들 대부분이 정신과 의사이고 목회자들 가운데 분석가는 감리교 출신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연구자가 속한 장로교단에서의 꿈 분석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오늘날 심리학 분야에서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인 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목회현장에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오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에는 공인된 정신분석가들이 교계에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 과정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본다.

넷째, 융 분석심리학을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오히려 양성평등적인 심리학으로서 융의 가치를 재발견하였다. 심층심리학 분야에서도 융의 분석심리학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기독교의 영성을 해석해 낼 수 있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구원의 원리로서 여성성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주의자들은 융을 생물학적 결정론인 프로이트의 아류로 취급하면서 평가절하했지만 이제 여성주의에서도 분석심리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그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성 차별적인 요소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분석심리학 역시 여성주의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여성성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서 양성평등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융의 주장이 이렇고 또 분석심리학의 이론이 이렇다고 고집하기보다도 21 세기 여성주의와의 간학문적인 대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영적 개발을 위한 발전 과정으로서 매트릭스 개념의 도입이다. 그동안 분석심리학에서는 대극의 합일, 보상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정신 세계의 변환 과정을 설명해 왔고 좀 더 입체적으로는 순환적 발전과정으로 개성화 과정을 표현해 왔다. 그러나 대극의 합일, 보상의 원리라는 말 자체가 중성적이고 평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 세계는 결코 평면적이지 않으며 마차 공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구성된 집합체들이 정신적인 결핍과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변증법적으로 즉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자가조정을 이룬다는 점이다.

여섯째, 꿈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살아있는 문헌으로서의 인간의 경험을 실천신학적 주제로 이끌었다는데 있다. 이로써 꿈에 대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교회 현장에서 탈진을 경험하는 중년기 목회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체험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부장적인 가체체계 속에 함몰되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팽창된 남성성에 병들어 가고 있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범위에서 밝혔듯이 융의 이론을 다 다루지 않고 꿈 작업과 관련하여 성서에 나타난 꿈과 환상, 꿈의 성격과 구조, 꿈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그리고 꿈의 해석과 관련된 이론과 적용으로 한정했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 자신이 지난 6 년 동안 꾼 꿈을 중심으로 개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여성성으로서의 아니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융의 그림자와 페르조나, 자기실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으며 지난 6 년을 벗어나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연구자 외 다른 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의 독특성 때문에 연구의 윤리문제나 연구자료 수집에 있어서 피분석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수월한 점이 있었지만 정반대로 연구자가 자신의 분석자료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측정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오랫동안 교육분석을 받은 내담자들의 분석자료를 그들의 동의를 얻어 분석가로부터 제공받고 그것을 원자료로 삼아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최선의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가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국 제 3 자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 연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꿈이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여과없이 원색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꿈을 포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봉착하면서 이번 연구는 난항을 겪었다. 단순히 연구자 자신의 영성생활을 위한 교육분석자료가 이제 연구 자료가 되어 연구자 앞에 놓여 있을 때 공인된 분석가가 아닌 자신이 그것을 다시 분석한다는 것이 딜렘마였다. 다시 말하면 피연구자와 연구자의 동일성과 이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때로 중도에 연구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다섯째, 본 연구 주제에 대하여 융 정신분석가의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성 그 자체의 구원의 원리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간적인 제약으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아니마는 그림자보다 더 심층에 배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분석심리학의 초보자로서 연구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논문 제안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년기 남성 목회자를

위한 그룹 꿈 분석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부족함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구를 위한 제언

중년 남성 목회자의 꿈에 나타난 여성성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윤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목회윤리 분야에서만 간혹 다루어지고 있을 뿐 목회상담학, 심리학,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회자의 윤리 문제는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오랫 동안 축적된 무의식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전체성과 온전성을 이루지 못한 목회자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역동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공인된 분석가에 의하여 장기간 진행된 피분석가의 분석 결과에 대한 질적 연구가 집적되고 그 방법론이 세련되어져서 그동안 축적된 분석심리학의 지식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인된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수련이 필요하고 목회자 가운데

분석가가 극소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석심리학이 목회상담의 한 분야와 간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오늘날 심각한 정신 병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신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급격하게 쇠퇴하는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인 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서에 나타난 꿈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 가부장적인 시대였기에 상대적으로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가 취약하였다. 그러나 꿈의 상징은 원형상이기 때문에 성서에서 꿈을 회복할 때 문화적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타난 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그마로 화석화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분석심리학을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주의와의 간학문적인 연구를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은 분석심리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융 분석가들 역시 여성주의자들과의 소통에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전통을 고수해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여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분석심리학과의 대화의 매개체가 될 수있다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볼 때 분석심리학은 매우 양성평등적인 심리학으로서 남성은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여성성을 개발하고, 여성은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남성성을 개발함으로서 온전한 존재로 자라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분석심리학과 여성주의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이 시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다섯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측정의 일관성과 타당도가 있는 영성형성 모델의 개발이다. 교육학과 영성학에서는 인간 존재의 발달단계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왔지만 그 동안 분석심리학은 정신세계의 모호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명확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왔다. 분석심리학이 현대인들에게 실용적으로 적합한 치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분석심리학이 현대심리학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고 융 학파의 교육분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심리학이 현대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분석가와 피분석가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C. 목회자의 그룹 꿈 분석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꿈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영적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목회상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는 영혼의 의사이다. 그러므로 그룹 꿈 분석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관심을 외적 사역과 부흥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로 돌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의 삶과 목회를 숙고하도록 돕고 내면세계에 대한 융의 관점을 소개하고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참가자들의 내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페르조나의 개념을 연구하고 한국 목회자들의 페르조나 문제를 살펴보며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페르조나와 동일시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건강한 페르조나를 가지고 살도록 돕는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목회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어떤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 했는지를 말씀을 기초로 고찰한다.

셋째, 융의 그림자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우리 안에 그림자 측면을 깨닫게 하며 성숙한 삶을 살려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그림자를 대면하는 방법을 참여자들에게 소개한다. 그림자라는 용어, 페르조나와 그림자의 관계, 꿈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 인물들, 그림자 투사 등 강의를 한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림자 문제를 다룬다.

넷째, 자아성찰과 영성 생활에 꿈과 꿈 작업이 왜 중요한지를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꿈 작업의 실제적인 지침을 소개한다. 성경과 초대교회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꿈이란 무엇인지 강의한다. 꿈작업이란 무엇이며 꿈의 보상적 기능과 그외 다양한 기능 그리고 스스로 꿈작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소개한다.

다섯째, 연구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꿈 작업을 자기 실현을 위한 영성수련의 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시간은 한적하고 고요하고 단순한 사색의 동굴에서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와 대면함으로써 목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며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서 진정한 자신과 타자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순례의 여정이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림자상은 자신의 왜곡되고 병든 자아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자 투사를 멈추게 해줄 것이다. 특히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성 원형들은 자아가 진정한 자기로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동반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에로스적인 측면인 여성성을 통합하게 해줌으로써 나만의 개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이 한국 개신교회 가운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치유, 회복,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꿈과 여성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다양한 영성수련의 한 방편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D. 논문을 마무리하며

지난 6 년 동안 꿈 분석은 연구자의 영혼을 정화하는 등불이 되었다. 당시 영적으로 탈진상태에 이르렀기에 연구자의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원색적인 원형상들이 많았다. 연구자는 지금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여정에 서 있다. 순풍을 만난 배처럼 기계적으로 순환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숙을 향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아니 지난 인생 자체가 고뇌와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은 매순간이 변증법적 원리를 따라 대극의 합일을 이루어가는 변환의 과정이 아닐까? 자기실현이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대극들을 통합하여 온전함과 전체가 되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다.

그만큼 연구자는 자유로워졌고 이전보다 더 온전해졌으며 과거보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한다.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기보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갈 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영웅의 삶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과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연구자는 여기서 지금 아주 특별한 존재로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번 논문을 쓰면서 연구자는 내 안에 보석처럼 감추어진 여성성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통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온전해졌다.

Bibliography

-단행본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_____.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김서영. *내 무의식의 방*. 서울: 책세상, 2014.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2001.
_____. *종교체험*. 서울: 동명사, 2001.
_____.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2002.
_____. *분석심리학과 종교*. 서울: 학지사, 2014.
_____.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신비주의*. 서울: 한국 융 연구소, 2015.

라은성. *연구주제로부터 포멧까지: Theologocal Research Methods in Practice*. 서울: 그리심, 2011.

박신 and 김계희. *부성 콤플렉스: 분석심리학적 이해*. 서울: 한국 융연구소, 2015.

박종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8.
_____. *융 심리학과 성서적 상담*. 서울: 학지사, 2009.

서동혁 and 이문성. *분석심리학과 불교*. 서울: 한국 융 연구소, 2015.

심상영. *융의 분석심리학*. 서울: 쿰란출판사, 2001.

오강남. *종교, 심층을 보다*. 서울: 현암사, 2011.
_____. *종교란 무엇인가?: 신의 실체에서 종교전쟁까지*. 서울: 김영사, 2012.

이관직. *목회심리학*.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이나미.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우리 이야기로 보는 분석심리학*. 서울: 민음인, 2012.

이명돈. *KBS 기획 다큐멘터리: 마음*. 서울: 예담, 2009.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 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93.
_____. *그림자: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서울: 한길사, 1999.
_____.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 속의 여성, 여성 속의 남성*. 서울: 한길사, 2001.
_____. *자기와 자기실현: 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서울: 한길사, 2002.
_____. *한국의샤머니즘과분석심리학: 고통과치유의상징을찾아서*. 서울: 한길사, 2012.
_____. *노자와융: 도덕경의분석심리학적해석*. 서울: 한길사, 2012.
_____. *분석심리학이야기*. 서울: 집문당, 2014.

정인석.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서울: 대왕사, 2008.

-번역서

Boa, Fraser. *The Way of The Dream 융 학파의 꿈 해석*. Translated by 박현순 and 이창인. 서울: 학지사, 2007.

Bolen, Jean S. *Goddesses in Everywoman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Translated by 조주현 and 조명덕.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9.

Conway, Jim. *Men in Midlife Crisis 남자 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 Translated by 한성열. 서울: 학지사, 2004.

Cooper, John C.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Translated by 이윤기. 서울: 까치, 2010.

Clift, Wallace B. *Jung and Christianity: The Challenge of Reconciliation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Translated by 이기춘 and 김성민.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Translated by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and 권지성. 서울: 학지사, 2005.

Durmuller,Jacqueline. *Life and Death, Death and Life 삶과 죽음, 죽음과 삶*.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07.

Edinger, Edward F. *Bibliographic Information 성서와 정신-구약성서의 개성화 과정.* Translated by 이재훈.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Estes, Clarissa P. *Women Who Run with The Wolves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Translated by 손영미. 서울: 이루, 2013.

Fehr, Wayne L. and Donald R. Hands. *Spiritual Wholeness for Clergy 성직자를 위한 건강한 영성: 하나님, 자아, 그리고 타자와의 깊은 교제를 위한 새로운 심리학*. Translated by 이정기. 서울: 예영 미디어, 2002.

Fontana, David. *The Secret Language of Dreams 꿈의 비밀*. Translated by 원길재. 서울: 문학동네, 1998.

Frantz, Marie-Louise von. *The Cat: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융 심리학과 고양이*.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07.

Freud, Sigmund. *Vorlesungen zur Einfuhrung In die Psychoanalyse 정신분석입문*, Translated by 구인서. 서울: 동서문화사, 1975.

George, Fitchett. *Assessing Spiritual Needs 영적 진단을 위한 지침*. Translated by 유영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Gerkin, Charles V*.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살아 있는 인간문헌: 해석학적 목회상담학*. Translated by 안석모.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Goodison, Lucy. *The Dreams of Women: 여자들의 꿈*. Translated by 김인성.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10.

Jaffe, Lawrence W. *Liberating the Heart: Spirituality and Jungian Psychology 융 심리학과 개성화*.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2.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ious Experiences: A Study in Human Nature 종교체험의 여러 가지 모습들*. Translated by 김성민 and 정지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Johnson, Robert A. *He: Understanding Masculine Psychology 신화로 읽는 남성성 He*. Translated by 고혜경. 서울: 동연, 2006.

_____. *She: Understanding Feminine Psychology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Translated by 고혜경. 서울: 동연, 2009.

_____. *Owning Your Own Shadow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융 심리학이 밝히는 내 안에 낯선 나.*Translated by 고혜경. 서울: 에코의 서재, 2006.

_____. *Inner Gold 내면의 황금*. Translated by 박종일. 서울: 인간사랑, 2010.

_____. *Inner Work 내면작업*. Translated by 고혜경 and 이정규. 서울: 동연, 2011.

Johnson, Robert A. and Jerry M. Ruhl. *Living Your Unlived Life 내 그림자에게 말걸기.*Translated by 이종도. 서울: Y 브릭로드, 2007.

Barbara Hannah. *His Life and Work: A Biographical Memoir 융 그의 삶과 저작*,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3.

Jung, Emma. *Animus and Anima 아니무스의 아니마*, Translated by 박해순. 서울: 동문선, 1995.

Jung, Gustav Carl, Joseph L. Henderson, Marie-Louise von Franz, Aniela Jaffe, andJolande Jacobi. *Man And His Symbols 인간과 상징.* Translated by 이윤기. 서울: 열린 책들, 1996.

Levinson, Daniel J., Charlotte N. Darrow, Edward B. Klein, Maria H. Levinson, and Braxton McKee. *The Seasons of a Man's Life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Translated by 김애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Messer, Donald E. *Contemporary Images of Christian Ministry 새 시대 새 목회: 현대의 목회상 탐구*. Translated by 이면주.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Miller, William A. *Make Friends with Your Shadow 섀도: 당신 속의 어두운 그림자와 친구가 되라*. Translated by 백상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lated by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WPA, 2012.

Pruyser, Paul W. *The Minister as a Diagnotician 생의 진단자로서 목회자*. Translated by 이은규.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1994

_____.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의 개론*. Translated by 유영권. 서울: 은성, 2004.

Samuels, Andrew, Bani Shorter, and Fred Plaut. *A Critical Dictionary of Jungian Analysis 융 분석 비평사전*. Translated by 민혜숙. 서울: 동문선, 2000.

Sanford, John A. *Ministry Burnout 목회탈진과 융 심리학*.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1.

_____. *Evil: The Shadow Side of Reality 융 학파 정신분석가가 본 악*.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03.

Stephenson, Bond D. *Living Myth: Personal Meaning as of a Way of Life 프로이트와 이별하다: 무의식의 깊은 잠을 깨우는 융 심리학*. Translated by 최규은. 서울 예문, 2012.

Taylor,Jeremy. *Where People Fly and Water Runs Uphill 사람이 날아다니고 물이 꺼꾸로 흐르는 곳*. Translated by 이정규. 서울: 동연, 2009.

Tzu, Lao. *A New Translation of the Tao Te Ching and Some Reflection 도덕경*. Translated by 오강남. 서울: 현암사, 2010.

Ulanov, Ann B. *Spirituality and Psychology 영성과 심리치료*. Translated by 이재훈.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Kast,Verena.*Vater-Toechter. Mutter-Soehne 나를 창조하는 콤플렉스*. Translated by 이수영. 서울: 푸르메, 2007.

Welch, John. *Spiritual Pilgrims: Carl Jung and Teresa of Avila 영혼의 순례자들*. Translated by 심상영.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Vergote, Antoine. *Dette et Desir: Deux axes Chretiens et La Derive Pathologique 죄의식과 욕망: 강박신경증과 히스테리의 근원*. Translated by 김성민. 서울: 학지사, 2009.

-논문

박은숙. “꿈 분석을 통한 중년기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 M.A. thesis,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7.

이다감. “그룹 투사 꿈 작업 체험 여성들의 여성성 인식 변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M.A. thesis,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12.

이현숙. “꿈 분석을 통한 개성화 과정 연구.” M.A.C . thesis,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9.

-학술지

강남순. “코스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7).” *기독교사상* vol. 9 (2014): 202-19.

고미라. “양성성과 여성성.” *여성과 사회* vol. 7 (1996): 127-37.

김서영. “여성성 회복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요청의 현재적 의미.” *아시아여성연구* vol. 53, no 2 (2014):191-99.

김시천. “도가와 여성성: 노자에서 돌봄의 개념은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vol. 8 (2007): 1-26.

김은미. “중년기의 특성과 적응을 위한 제안(1).” *신학정론* vol. 23, no. 2 (2005): 201-21.
_____. “중년기의 특성과 적응을 위한 제안(2).” *신학정론* vol. 24, no. 1 (2006): 193-210.

문성호. “상담과 심리치료 속에 나타난 C.G.Jung 의 인간관과 정신병리 문제의 관점.” *한국 심리유형학회지*, vol. 1(2009):101-15
유영권. “전인치유의 총체적 모델.” *신학논단* vol.28 (2000): 323-48.

유해룡. “영적 성장에 대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장신논단* vol. 44, no. 1(2012): 188-209.

이죽내. “융의 분석심리학적 심리치료 개관.” *가족과 상담*, vol. 1, no. 1(2011): 41-70.

진교훈 and 윤영돈. “융 심리학의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사대논총* vol. 66: 73-103.

부록 Appendix

꿈 분석 사례

2009년 11월 23일) 장례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피난행렬처럼 초라하고 지쳐있다. 나는 고대 무덤 같은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H목사 부부가 솜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다. 밖으로 나오는데 검정 옷을 입은 두 여자가 서 있고 한 남자가 나에게 짐이 없으면 저 여자들을 좀 부축해 주라고 말한다. 목회자를 뭐로 보고 저런 부탁이야! 나는 기분이 상한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검정 망토를 쓴 사람이 나의 길을 막는다. 내 하인이 칼로 그를 저지하자 그는 자신의 칼을 입에 물로 한 순간에 두 동강을 낸다. 자객의 모습을 본 공주는 도망치고 그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H목사 부부를 한 칼에 죽인다.

환, 찬, 영 세 자녀가 빗 속에 트렁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땀이 비 오듯이 흘러 내린다. 이 때 R목사가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가다가 페달이 고장 난다. 민가에 이르러 그가 간증을 시작한다. 나는 군대에서 암송카드를 외운다. 나는 R목사에게 자장면 드시고 가실래요? 라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옆에 서 있던 막내 딸이 그걸 신기한 듯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는다.

분석) 장례, 피난 행렬은 현재 나의 피곤하고 지친 현실을 의미한다. 내가 지금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는 H목사의 실상은 불행하다. 칼로 막아서는 하인은 내

안에 있는 보호자이다. 검정 망토를 입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림자로서 나의 보호자보다 더 강력하다. H 목사를 죽인다는 것은 그처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꿈은 H 목사의 우상을 깨뜨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H 목사는 외적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실상 꿈속에서 그의 모습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 장례, 산, 피난행렬 그리고 무덤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무덤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H 목사의 우상을 닮아가려는 나의 삶의 고단함을 상징한다.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H 목사를 죽인 것처럼 무의식은 H 목사를 닮아가려 애쓰기보다 그의 우상을 죽이고 너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한다.

내 안에 세 명의 Inner Child 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페달이 고장 났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R 목사에 대한 연상은 경건, 완벽, 절제, 온유, 인격, 신앙, 성경, 훈련, 지성, 남성 등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대조적이다. 성기는 권력을 상징한다. 막내 딸은 여성, 본능, 가능성, 감정 등을 의미한다.

이 꿈은 내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들을 돌봐 주라는 의미이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만 내 속에 있는 아이들은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힘겹게 비속을 걸어가고 있다.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꿈은 내 안에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 목사와 같은 파워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여성성, 본능, 따뜻함, 부드러움 등을 통합하길 원한다.

2010 년 4 월 1 일)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깜깜한 밤에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나에게 페르세포네와 같은 젊고 생기있는 여성을 보내주면 이 계곡을 통과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나는 이 길을 통과시켜 주면 오는 길에 그런 여성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사람들이 나에게 입을 모아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 때 아폴론처럼 잘 생기고 키가 작은 A 장로가 다가와 웃으면서 말한다. “최초의 신앙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경감되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

분석) 개성화의 과정은 여행과 같다. 이 여정은 쓸쓸하고 차갑고 어두운 밤일 때도 있다. 그 과정에서 괴물을 대면하기도 한다. 고대 설화를 보면 그 과정에서 괴물을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신공양을 하기도 한다. 야수에게 미녀가 필요하듯, 킹콩에게 여자가 필요하듯, 괴물에게는 순결한 처녀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메시지일지 모른다.

야수도 킹콩도 괴물도 모두 다 현대 남성을 의미한다. 지금 꿈은 지금 젊고 순종적이고 생기발랄하고 착한 여성성을 찾고 있다. 미녀 앞에 야수는 순한 양으로 변한다. 이것은 실제 여성이 아니라 영원한 여성성을 의미한다. 이런 여성이 실제로 나타나면 남성은 외도의 유혹을 받는다. 이것이 중년기의 위기이다. 아무리 아니마를 닮았어도 밖에 있는 여성은 남성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지금 꿈은 페르세포네와 같은 여성성을 찾고 있다. 이는 나에게 감정과 본성과 몸과 놀이와 관련된 아니마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여성적인 측면이 사라졌다. 교회 사역조차도 일사 분란하게 카리스마를 갖고 전투처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이다. 사명 중심, 눈에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개신교의 현주소이다. 이런 측면을 계속 추구한다면 머지 않아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많이 사랑하고 사랑 받는 사람을 살아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 다행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측면이 있다. 그는 나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한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사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의미이다.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꼭

드는 상품이 되려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개성화의 과정을 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다.

2010 년 12 월 24 일)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다. 나는 점점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가 늙어간다. 결국 내 딸이 갓난 아이가 되어 버린 늙은 나를 품에 안고 있다.

분석) 이것은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꿈속의 어머니와 딸은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원형을 상징한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목회자는 대개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성성을 상실한다.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여성성을 상징하지만 개신교에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던 성령조차도 남성화되어 있다. 개신교가 여성적인 측면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공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성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여성적인 원리를 통합할 때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랫동안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다.

2011 년 6 월 1 일) 나는 술집에 들어간다. 하지만 밖에 서 있던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삼진 아웃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 출입할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너무 황당한 느낌을 받는다. 이 때 누군가가 나에게 3 시간 동안 마담을 만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5 층으로 올라오라고 한다. 마담은 착하고 매너 있고 예쁘다. 나는 층계를 올라가 방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방이 없었다.

노예 상인들이 흑인들을 경매하고 있다. 팻말을 보니 학식 있는 자는 kg 에 5 달러, 건강한 자는 kg 에 50 달러라고 써 있다. 생각해 보니 나는 노예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같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20 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내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른다. 얼굴은 사랑스럽고 목소리는 감미롭다.

분석) 삼진 아웃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이 지금 탈진되었음을 가리킨다. 내 안에 여성성과 3 시간 동안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방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몸, 감정, 본능 등 여성적인 요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꿈은 이런 나의 상태를 노예라고 묘사하고 있다. 꿈은 학식을 깎아 내리고 몸을 강조한다. 흑인은 대지, 몸, 강함, 본능을 상징한다.

어떻게 이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 꿈은 20 대 후반의 젊은 여성을 등장시킨다. 이는 실제 존재하는 어떤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성적인 측면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꿈이다. 또한 꿈은 힘 좋은 노예처럼 지금 하고

있는 정신적, 영적인 사역과 상관없이 몸을 사용하여 땀을 흘리는 일을 할 것을 요청한다. 꿈 속의 여성처럼 노래를 부르는 내면의 아니마와 접촉할 때 현실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즉 육체성, 여성성, 감정, 본능, 에로스적 측면을 계발하고 하늘의 것, 남성성, 지식, 율법과 같은 로고스적 측면을 자제하라는 말이다.

2012 년 6 월 1 일) B 로 시작하는 가난한 나라에 7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다. 갈색으로 된 빌라 같은 곳에 도착하니 그 안에 한 여성이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있다. 조금 지나 보니 그녀는 마녀로 변한다. 나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창문으로 탈출하여 마치 거미처럼 벽에 붙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 마치 자석의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나는 마녀에 의하여 창문으로 빨려 들어간다. 다시 그 집을 보니 은색으로 된 왕궁이다.

분석) 마녀는 악의 여왕이요 파괴적인 모성상이다. 이는 부정적 감정의 측면으로서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칠칠 맡게 느껴지고, 스스로 깎아 내리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은색은 달빛이요 여성적이며 무의식적인 측면이다. 즉 무의식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가능성인데 그 아이들을 마녀가 가혹하게 때리고 있다. 만약 이런

부정적인 여상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꿈에 등장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